

세미나자료집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미래 환경 변화와
청소년 역량 강화**

일시 | 2017년 3월 31일(금) 14:00~17:00

장소 | 명지대학교 국제회의장

인 사 말 ■ ■ ■

겨울의 추위를 벗어나 활기찬 봄이 다가왔습니다. 피어나는 꽃잎과 봄 내음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이렇듯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2016년도 공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발표회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맞춰 미래를 대비하여 청소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최하는 연구성과발표회의 주제로 「미래 환경 변화와 청소년 역량 강화」로 선정하였고, 2016년 연구과제 중 4개 과제를 선정하여 많은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4개 과제 중 첫 번째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인 청소년 삶의 질과 미래세대로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방안」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세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 마련을 위한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과 세 번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역량 수준과 발달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방향 등을 설정하고 미래 사회를 대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창의적, 주체적인 존재로서 삶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 하려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체계화,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실행방안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발표회를 통한 다양한 공유는 더 나은 연구로의 발전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학계 전문가, 정부 부처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성과발표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한경

세 부 일 정

| 시 간 | 내 용 |
|-----------------------------------|--|
| 전체 사회 : 좌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성과기획팀장) | |
| 14:00~14:10 | □ 개회식 - 개회사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 환영사 : 최창규(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 좌장 : 권일남(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 14:10~14:40 (발표20분, 토론10분)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 발 표 자 : 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전성민(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
| 14:40~15:10 | ▶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 - 발 표 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박종효(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15:10~15:20 | COFFEE BREAK |
| 15:20~15:50 | ▶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 - 발 표 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 15:50~16:20 |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개발 - 발 표 자 :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유성렬(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교수) |
| 16:20~17:00 | □ 종합토론 |
| 17:00 | □ 폐 회 |

목 차

발 표 / 토 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1
발 표 : 황 세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전 성 민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 37
발 표 :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박 종 효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 81
발 표 :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 조 아 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개발** 117
발 표 : 강 경 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교수)

발표 1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황 세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엔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6년부터 향후 15년 간 추진할 새로운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MDGs 이후의 개발 의제에 대하여 2014년 유엔 종합보고서에서는 빈곤 종식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을 변혁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인류사회의 미래 비전이자 정책 목표임을 확고히 하였다(UN SG, 2014).

SDGs의 이행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에서와 같이 SDGs는 17개 목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SDG 4는 양질의 교육 보장을, SDG 8은 청년 일자리 보장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 연령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빈곤(SDG 1, 2), 건강 및 웰빙(SDG 3), 성 평등(SDG 5)과 같은 주제들은 청소년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중요성과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목표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산업 및 환경 영역에 걸쳐있는 나머지 목표들은 기존의 청소년 정책들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는 개념인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환경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SDGs의 관점은 미래사회에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삶의 질, 안전, 권리 등을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재경 외, 2013).

1) 이 원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고유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표 1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 목표 | SDGs 세부목표 |
|------------------------------|---|
| SDG 1 빈곤종식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
| SDG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 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
| SDG 3 건강한 삶의 보장 |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
| SDG 4 양질의 교육 |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
| SDG 5 양성평등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
| SDG 8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
| SDG 10 불평등 해소 |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 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

| 목표 | SDGs 세부목표 |
|--|--|
|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 |
|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정주 계획과 관리 확대 |
| |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
|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
| SDG 13 기후변화 대응 |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
| SDG 16 평화와 정의·제도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 |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
| 기타: SDG 6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 SDG 7 지속가능한 에너지; SDG 9 혁신과 인프라, SDG 14 해양 생태계 보존, SDG 15 육상 생태계 보존;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 | |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p. 138-155.
 굿네이버스 사이트,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우리 모두를 위한 목표,
<http://campaign.goodneighbors.kr/main/gnwebzine/2015/12/specialreport.asp> 에서 2017년 1월 3일 인출.

SDGs와 청소년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SDGs의 세부 목표 각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내재된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위치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인「우리 공동의 미래」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WCED, 1987: 1)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발전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사회발전의 궤적에서 청소년이 갖는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는 최초의 청소년분야 전략인 「Youth Strategy 2014-2017」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한 ‘인간의’ 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도전의 해결과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을 강조하였다(UNDP, 2014). 즉, 지속가능발전은 인간이 환경·경제·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UNDP, 2014: 7).

본 연구의 목적은 SDGs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인 청소년 삶의 질과 미래세대로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SDGs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나아가 이행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더 나아가 미래 발전의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곧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6년 2월 SDGs 글로벌 지표가 확정되고, 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이행 검토체제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SDGs를 국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정책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야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국내 이행 방안 모색에 있어 청소년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분석 대상의 범위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차청소년기본계획의 경우 2013~2016년까지 4년 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제출된 정책사업의 내용 및 예산을 SDGs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만15-24세 청소년 986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지속가능발전 인식 및 역량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설계는 가구표본조사로 이루어지며, 2016년 4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와 통계청 집계구를 표본 틀로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으로 가구들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대면하는 방식인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기본사항은 <표 2>와 같다. 전체 986명 가운데 여자는 47.6%, 남자는 52.4%였고, 청소년은 39.5%, 청년은 6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의 77%가 현재 학생이었고, 23%는 학생이 아니었다. 학생이 아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55명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표 2 조사 참여자 기본사항

| 구분 | 사례수(%) | | | | | |
|------------------|--------------|-----------|-------------|-----------|-------------|-----------|
| | 성별 | 여학생 | | 469(47.6) | 남학생 | |
| 연령 | 만 15-18세 | | 389(39.5) | 만 19-24세 | | 597(60.5) |
| 현재 학생 | 합계 | | | 750(77.0) | | |
| | 중학생 | | 67(6.8) | 고등학생 | | 275(28.2) |
| | 대학생 | | 403(41.4) | 대학원생 | | 5(0.6) |
| 현재 학생 아님 | 합계 | | | 224(23.0) | | |
| | 중졸 이하 | | 4(0.5) | 고졸 이하 | | 151(15.5) |
| | 대졸 이하 | | 68(6.9) | 대학원 졸업 이상 | | 1(0.1) |
| 지역 | 특별시 | 165(16.7) | 광역시 | 274(27.8) | 도 | 547(55.6) |
|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 상위 (8-10) | 130(13.2) | 중위 (4-7) | 801(81.2) | 하위 (1-3) | 55(5.6) |
| 아버지의 최종학력 | 부모님 안 계심 | | 22(2.2) | 초등학교 졸업 | | 10(1.0) |
| | 중학교 졸업 | | 29(2.9) | 고등학교 졸업 | | 435(44.1) |
| | 2-3년제 대학 졸업 | | 145(14.8) | 4년제 대학 졸업 | | 299(30.4) |
| | 대학원 졸업 | | 21(2.1) | 잘 모르겠음 | | 25(2.5) |
| 어머니의 최종학력 | 부모님 안 계심 | | 6(0.6) | 초등학교 졸업 | | 10(1.0) |
| | 중학교 졸업 | | 37(3.8) | 고등학교 졸업 | | 560(56.8) |
| | 2-3년제 대학 졸업 | | 148(15.0) | 4년제 대학 졸업 | | 182(18.5) |
| | 대학원 졸업 | | 10(1.0) | 잘 모르겠음 | | 33(3.3) |
|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 일반 가정 | 985(99.9) | 다문화 가정 | 1(0.1) | 북한이탈 가정 | 0(0.0) |

3. 연구결과

1) 정책 현황

(1)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사업에서 청소년 관련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0년에는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이 선포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환경부, 2014: 4). 2005년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한데 이어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환경부, 2014: 4). 이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률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다시 말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대한민국, 2012)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청소년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환경 친화적 청소년 활동 인프라 조성, 통합적 보편적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수행, 위기, 취약 청소년의 복지 지원 강화, 수련 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 환경 과학 분야 지원 강화 등, 기존 청소년 정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을 키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차 계획(2011~2016)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는 성과 지표가 관리되었던 것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등이다(대한민국, 2012: 44-45). 그런데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과제의 경우 실제 청소년 정책사업의 성과가 아닌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정책의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2차 계획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가 4개에 불과하였다면 3차 계획(2016~2020)에서는 13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양한 정책 전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3>에서처럼 기존 청소년의 건강 증진 과제가 삭제되고,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만 언급되는 등, 청소년 활동, 권리, 보호, 자립 등 청소년 전반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산림 휴양 정책 사례와 같이 환경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층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증가한 반면,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이 당면한 교육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SDGs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기후변화, 환경 관련 정책(SDG 13, 14, 15)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 정책의 시야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SDG 4.7), 청소년의 참여(16.7), 부처 간 정책 협조체계(SDG 17) 등 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강조점이나 실질적인 정책 이행에 필요한 체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향후 SDGs의 국내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표 3 제2,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상의 이행과제 및 성과 지표 중 청소년 관련 내용

| | 세부 이행과제 | 성과 지표 | 소관 부처 |
|------------------------|----------------------------|---------------------------------|----------|
| 제2차 | 1-9-1 지속가능발전 교육기반 구축 |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 교육부 |
| | 3-1-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설치지역 수 | 보건복지부 |
| | 3-2-③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여성가족부 |
| | | 청소년의 행복감 | |
| 3-4-①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물질 비율 | 환경부 | |
| 제3차 | 1-1-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m ³) | 환경부, 산림청 |
| |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 환경부, 문체부 |
| | 2-3-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 식약처 |
| | 2-3-② 어린이 건강 증진 |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 환경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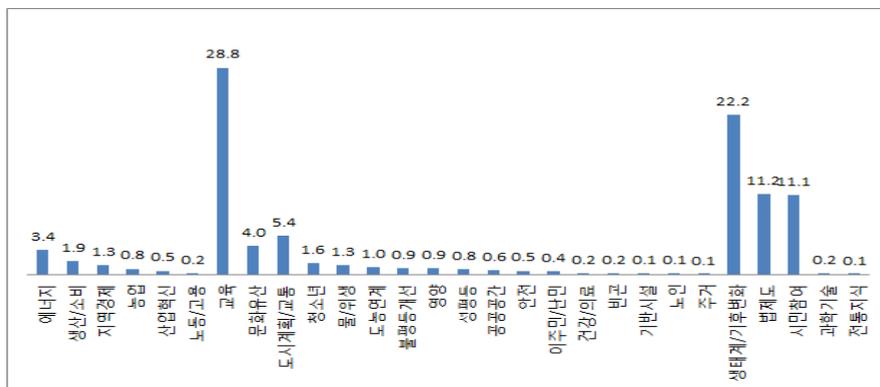
| 세부 이행과제 | 성과 지표 | 소관 부처 |
|--------------------------------|-----------------------------|---------------|
| |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만 명) | 환경부 |
| 2-3-④ 식품 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 HACCP 적용 비율 | 식약처 |
|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만 명) | 산림청 |
| |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개소) | 환경부 |
|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복지부, 교육부 |
|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 비율(%) | 여가부, 교육부 |
|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 여가부 |
|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 청년 고용률(%) | 고용부, 기재부, 미래부 |
| |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 중기청 |
|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 녹색제품 구매실적(억원) | 환경부 |
| 3-2-④ 저탄소생활 확산 |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개소) | 환경부 |
| 5-1-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 교육부 |
| | 산림교육 수혜 국민(만 명) | 산림청 |
| | 환경교육 수혜자(만 명) | 환경부 |

* 출처: 환경부(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 84.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pp. 35-158.

다음으로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지방의제 21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 국에서 지역차원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UNCED, 1992).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는 총 142개에 이르는 등,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이 오랫동안 구축되었다(오수길·윤경효, 2016a). 2016년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48곳에 이르는 등

지방의제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24개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LCSD)에서 조사한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기간 중 24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천사업의 분야별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교육 사업은 전체의 28.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범주인 청소년 사업은 1.6% 수준이다. 교육 영역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 영역과 청소년 영역에는 관점의 차이가 발견된다. 부천을 예로 들면, 교육 영역에는 초등학교교실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기후변화에 대한 강연 등, 주로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청소년 영역의 경우, 청소년 모니터링,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의제작성, 학교 밖 청소년토론회, 청소년 100인 환경정책토론회, 청소년 그린리더양성을 위한 그린 컨설팅 등,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주체 혹은 미래사회의 리더로 보는 관점이 더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오수길 외 2016b: 19). 이처럼 두 사업 영역에 반영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청소년이 교육의 ‘대상’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수는 많지만,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업은 매우 적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거버넌스 참여 인적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상위 4개 그룹은 시민단체, 기업/산업계, 지방정부, 과학기술계로 나타났다(오수길 외, 2016a). 반면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청소년의 참여도는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군포, 아산, 광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4%로 매우 낮았다. 이렇게 볼 때 의제 21 추진의 짧지 않은 역사에서 청소년이 당사자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어렵다.



* 출처: 오수길·윤경호(2016a).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2011-2015. 서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p. 36에서 연구자 재구성.

【그림 1】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분야별 현황(2011-2015년)

(2)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과 SDGs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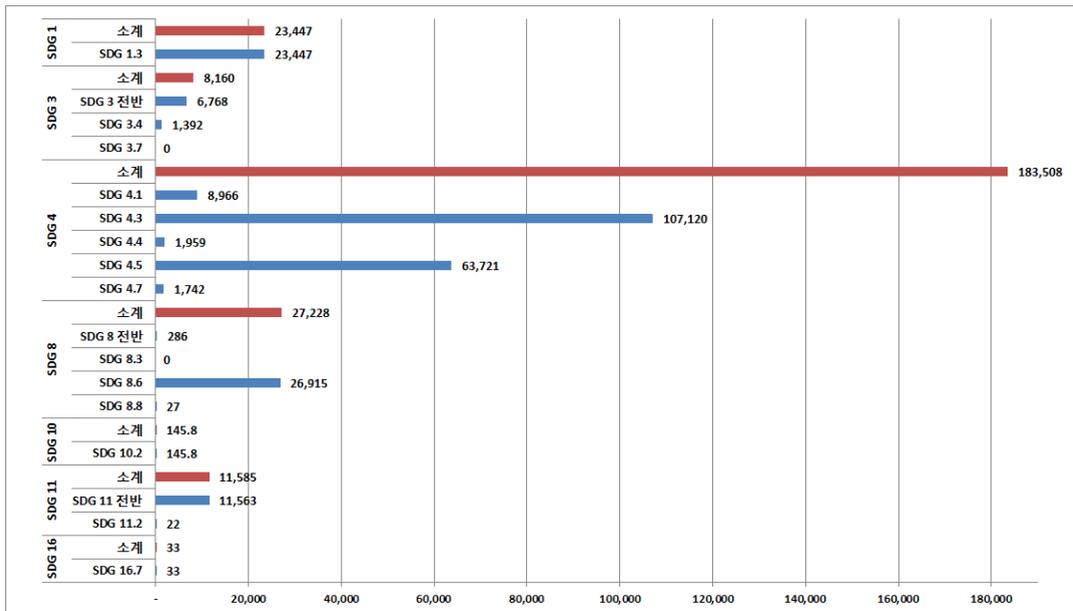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32).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내용이 인구·가족·생활환경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 다문화 사회 가속화,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청년 고용 불안 심화, 경제적 자립의 지연 등 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어 있어, 지구환경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관계부처 합동, 2012: 14-17).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악화는 현재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미래세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의 발생, 그로 인한 난민 문제, 그리고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지구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제5차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 진단에 있어 청소년의 행복, 삶의 만족도, 역량, 가치관 등 척도상의 낮은 수치와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이 바람직한 청소년 상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청소년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관계부처합동, 2012: 34) 한다고 했을 때, ‘지속가능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이 무엇이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등, 정책의 틀을 결정짓는 핵심 개념들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사회발전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출된 전체 청소년 정책의 틀 안에서 SDGs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은 지난 4년 동안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제출된 부처별 정책 사업 및 예산을 SDGs 세부 목표에 따라 범주화한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책 영역 중에서 SDGs와의 연계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문은 청소년 활동과 참여이다. 이 가운데서도 SDG 4.7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영역인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과 국제교류 활동을 비롯하여 문화다양성, 전통문화, 문화유산 보존, 민주시민역량 및 권리교육, 국제협력, 성평등, 성인지 교육, 통일교육 등은 향후 청소년 활동 영역이 보다 다양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예산 비중이 낮은 영역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의 주제, 수련거리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SDGs의 여러 주제는 청소년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현재는 주로 여가, 정신 건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향후에는 친환경 식생활, 학교텃밭 등 SDG 12. 지속가능생산과 소비와 SDG 2. 지속가능농업 등과 연계된 정책의 발굴 및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다른 환경 관련 SDGs(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역시 해당 정책영역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처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참여를 위한 청소년 대상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2】 SDGs 세부 목표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주: SDG 각 세부 주제별로 정책영역 정렬은 예산 순이며 괄호 안은 주요 관련 부처, 괄호 표시 없는 것은 예산이 0인 사업
 본문에 표시는 SDG 5. 성평등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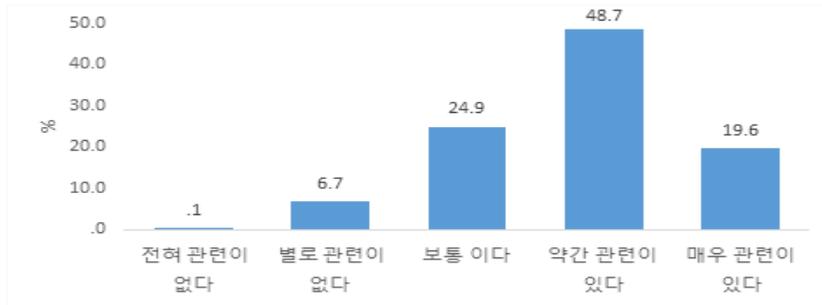
【그림 3】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시행계획 내용의 SDGs 관련 현황

셋째, SDGs 관점은 청소년 안전 정책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참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의 요구에 기반한 도시 계획 등은 현재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는 매우 취약한 분야(weak link)로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에서 SDG 5.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 고용지원과 성평등, 성인지교육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이 지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따라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조성’ 등의 과제를 고려하면, SDG 5 성 평등 관련 청소년 정책이 적지 않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기존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영역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DGs 여러 영역에 걸쳐 청소년 정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예컨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 관련 SDGs 13-15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산림청, SDG 4.7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 등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와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당 영역에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역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역량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개념을 묻기 전에, 삶의 만족도와 환경 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보통’이 42.8%, ‘만족’이 43.4%로 보통 이상의 답변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좋은 삶 또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데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68.3%가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고,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의 개념에 좋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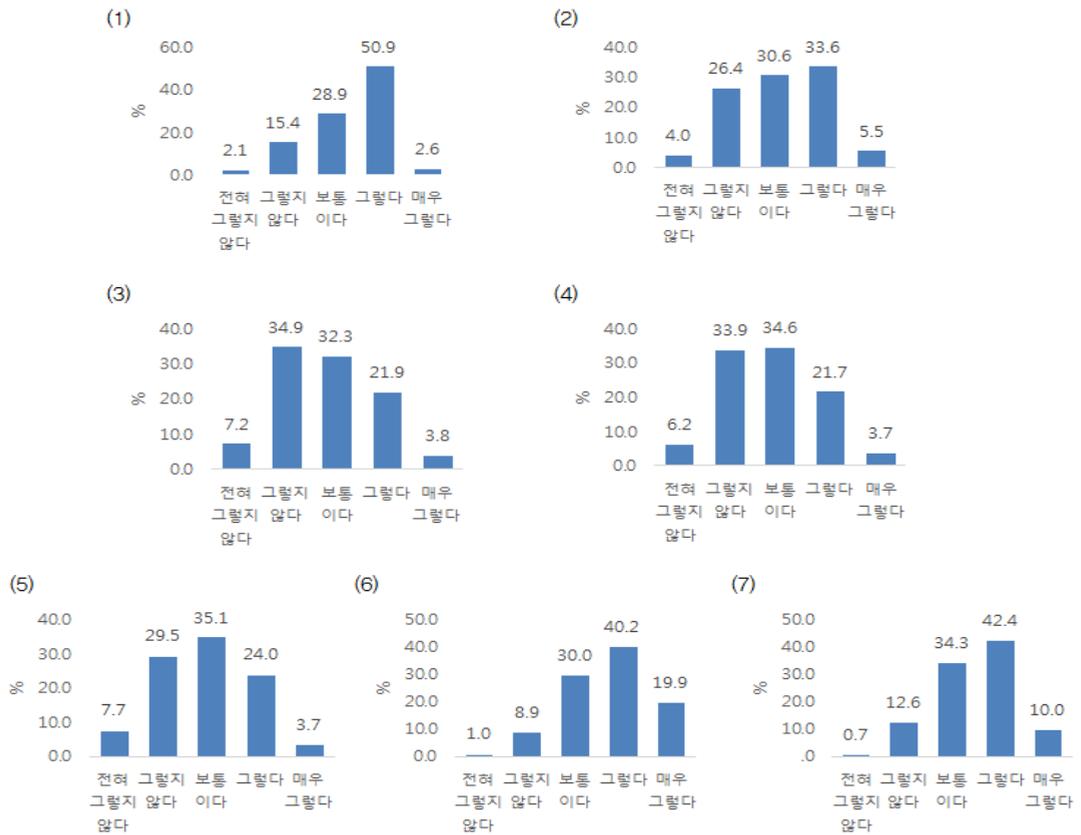
【그림 4】 좋은 삶, 양질의 삶 유지에 있어 환경 문제 관련 정도(%)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세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그림 5). 우선 응답자의 53.5%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인식도 17.5%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감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1%만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인식도 30.4%로 높았다. 따라서 두 문항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는 국민소득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국민소득 증가가 반드시 소득 재분배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25.7%에 머물렀으나, 부정적인 답변은 42.1%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 간의 관계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청년들은 경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거나 이 둘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환경문제를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25.4%)보다는 부정적인 답변(40.1%)의 비율이 높았고, 보통이라는 답변도 34.6%로 나타나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다만 성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은 27.7%인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37.2%로 부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 문항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청년들 사이에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높지 않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발전 계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0.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9.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은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3.3%로 높지 않았다. 다만 위 문항의 결과와 비교하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인식의 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 (1)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 (2)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 (3)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4)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 (5)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 (6)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 (7)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그림 5】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SDGs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19개 문항 중 평균 3점(보통) 이상은 문항은 7개로 많지 않다. 상위 점수 항목으로는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3.31점), (4) 양질의 학교교육(3.17점),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3.09점),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3.07점),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3.03점)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3), (4), (13)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이 깊은 요소이다. 하위 점수 항목으로는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9)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10)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표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 | 문항 | 평균 |
|------|--|------|
| (3) |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 3.31 |
| (4) | 양질의 학교교육 | 3.17 |
| (13)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 3.09 |
| (11) |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 3.07 |
| (8) |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 3.03 |
| (7) |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 3.00 |
| (14)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 3.00 |
| (6) |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 2.92 |
| (5) |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 2.88 |
| (12) |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 2.88 |
| (15)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 2.88 |
| (17) |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 2.88 |
| (16)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 2.83 |
| (1) |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 2.82 |
| (19) |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 2.82 |
| (2)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 2.81 |
| (18) |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 2.75 |
| (9) |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 2.74 |
| (10) |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 2.70 |

SDGs 관련 항목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층별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대기오염 등 오염문제에 대한 평균값은 남자는 2.78점, 여자는 2.89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에 대한 평균값은 남자가 2.84점, 여자가 2.66점으로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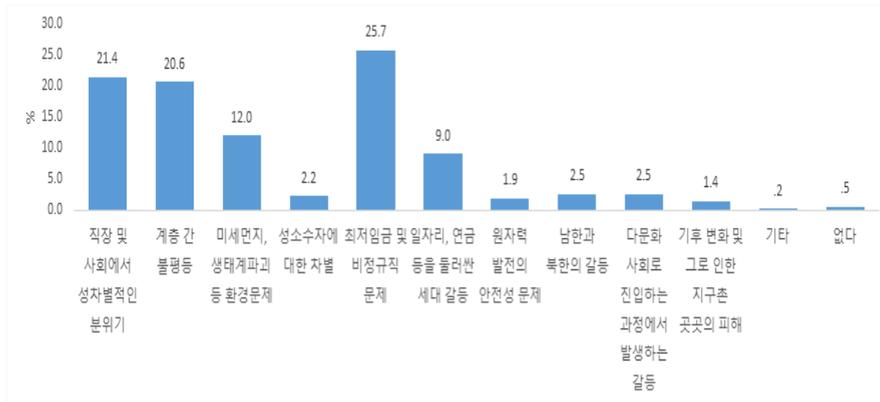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은 평균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3.38점), ‘계층 간 불평등’(3.36점)이 차지하여 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 세 문항 모두 청년층이 청소년층보다 관심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여자가 3.49점으로 남자 3.22점보다 높았고, 청년층이 3.39점으로 청소년층 3.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환경문제, 남북문제, 문화 다양성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5 사회이슈 관심 (전체)

| | 문항 | 평균 | t검정 결과 |
|------|--------------------------|------|-----------------|
| (5) |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 3.55 | 청년)청소년 |
| (6) |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3.38 | 청년)청소년 |
| (2) | 계층 간 불평등 | 3.36 | 청년)청소년 |
| (1) |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 3.35 | 청년)청소년 여성)남성 |
| (3) |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 3.23 | 청년)청소년 |
| (10) |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 3.14 | - |
| (8) | 남한과 북한의 갈등 | 3.09 | 여성)남성 |
| (7) |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 3.08 | 청년)청소년 |
| (9) |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3.02 | 여성)남성 |
| (4)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2.89 | 여성)남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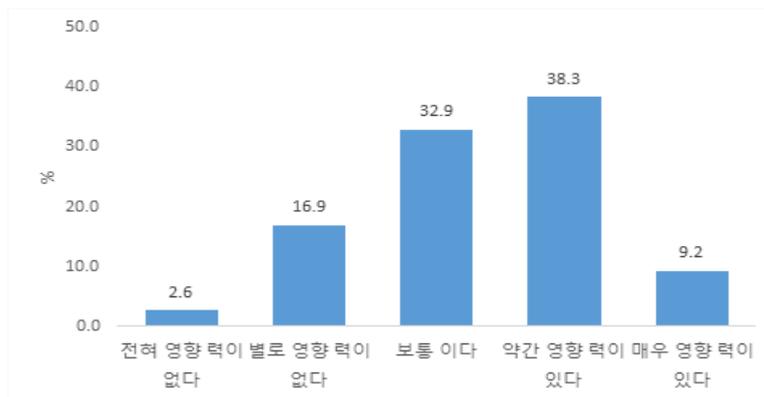
*청소년: 만 15-18세, 청년: 만 19-24세

이들 10개 사회문제에 대해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전체 집단으로 볼 때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가 25.7%로 가장 높았고, 성차별 문제 21.4%, 계층 간 불평등 문제 20.6%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사안 중에서는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가 12%로 가장 높았다.



【그림 6】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인식 조사 관련 마지막 항목으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3.3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7.5%가 긍정적으로, 19.5%가 부정적으로 답하여 긍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41점)이 남성(3.29점)보다, 청년층(3.48점)이 청소년층(3.14점)보다 또래의 영향력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7】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져야 할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인 역량과 관련하여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에서 평균 점수 3.3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에 대한 문항에서도

평균 3.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나머지 문항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는데, 경제 관련 사안에서는 청년층(경제적자립: 2.97점, 경제사안이해: 3.11점)의 점수가 청소년(경제적자립: 2.72점, 경제사안이해: 2.88점)보다 약간 높았다.

표 6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 | 문항 | 평균 | t검정 결과 |
|-----|---------------------------------|------|--------|
| (1) |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 3.37 | - |
| (2)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 3.36 | - |
| (3)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 3.14 | - |
| (6)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선 | 3.04 | - |
| (5) |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 3.02 | 청년)청소년 |
| (4) | 경제적 자립 | 2.87 | 청년)청소년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타나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태농업, 에너지, 생태보전 활동에 대해서는 여성의 참여 의향이 높았고, 공정무역 등 소비와 관련해서는 청년이 청소년보다 높았다.

표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 | 문항 | 평균 | t검정 결과 |
|-----|---------------------------------------|------|--------|
| (7) |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 2.99 | - |
| (5) |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 2.96 | 청년)청소년 |
| (4) |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 2.93 | - |
| (8)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 2.82 | - |
| (3) |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 2.80 | 여성)남성 |
| (6) |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 2.78 | - |
| (2) |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 2.74 | 여성)남성 |
| (1) |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 2.73 | 여성)남성 |

4. 정책 방안

1)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에 미래세대위원회 설치·확산

우리나라에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전국적으로 142개의 의제 21 추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및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의 의제21추진기구 소속 미래세대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청년의 참여 확산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권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처럼 전문 분야에 대한 사업 이행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다른 위원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현행 지자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경우 조례를 통하여 위원 구성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서울시 조례의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청년”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2) 범부처 (가칭)“미래세대 구상” 추진

우리나라에서 SDGs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분야 역시 SDGs의 방대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구상과 실행 기능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기존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 비해 심의·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책과 현안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범부처 사업인 (가칭) “미래세대 구상(Future Generation Initiative)”을 제안하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6차 기본계획에서 해당 과제를 세부과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은 부처별 정책 현안에 대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처별로 사업운영 방안을 도출하면, 이후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사업 조정 및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여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부처별로 미래세대 구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이 안에서는 먼저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부과제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활동 참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정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안 가운데 에너지자립학교와 개도국 청소년 ODA 사업의 경우 각각 시행 계획에 있거나 검토 중인 사안으로, 미래세대 구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별로 청소년·청년 관련 정책 실행역량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6차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에 점차적으로 미래세대 구상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8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의 내용(안)

| SDGs 영역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세부과제 | 정책사업(안) | 부처 |
|---------------------------|---------------------------------|------------------------------|---------------------------|
| 건강과 웰빙 SDG 2, 3, 15 |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 위기청소년 식생활관리 강화 | 식약처, 여성가족부 |
|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청소년 도시농업 참여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 |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지도자 대상 산림치유 교육과정개발 | 산림청 |
| 세계시민의식 SDG 4.7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강화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 |
| 고용 SDG 8 |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환경부, 문화체육부 |
| 안전 SDG 11, 13 |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강화 | 여성가족부 |
| 참여·권리 SDG 16.7, 17 |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 의제21을 통한 청소년·청년 활동 지원 | 환경부 |
| 환경 SDG 3, 4, 13 |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환경부 |
| |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생태 놀이터 조성 | 환경부 |
| |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자립학교(추진예정) ²⁾ | 교육부 |
| 국제개발협력 SDG 17 |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 | 개발도상국 청소년 ODA사업(검토중) | 여성가족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3)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청소년 정책 성과지표 확대 반영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청소년 정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청소년 관련 정책 내용을 충실히 담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무화할 계획이고 이에 교육부는 선제 조치로서 2020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 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학교를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2016).

제출한 2016년 예상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청소년 정책 사업 가운데 성과지표가 관리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향후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5b).

표 9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정책 성과지표(안)

| 목표 | 전략 | 이행과제 | 성과지표(안) | 주요 내용(안) | 소관 부처 |
|--------------------|-------------------------|------------------------|-----------------------------|---|--------|
| 2. 통합된 안심 사회 |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 CYS-Net 수혜자 변화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 가족부 |
| | |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청소년 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도모 | |
| | |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 현재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지원 | 여성 가족부 |
| |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2-3-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수(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활용 촉진 및 정신건강 증진 | 여성 가족부 |
| |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자 수(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 |
| | |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수(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 여성 가족부 |
| 5.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 1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 청소년참여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팀 수(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여성 가족부 |
| | | |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자 만족도(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정부 청소년정책 참여를 통한 역량 개발 | 여성 가족부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현재 청소년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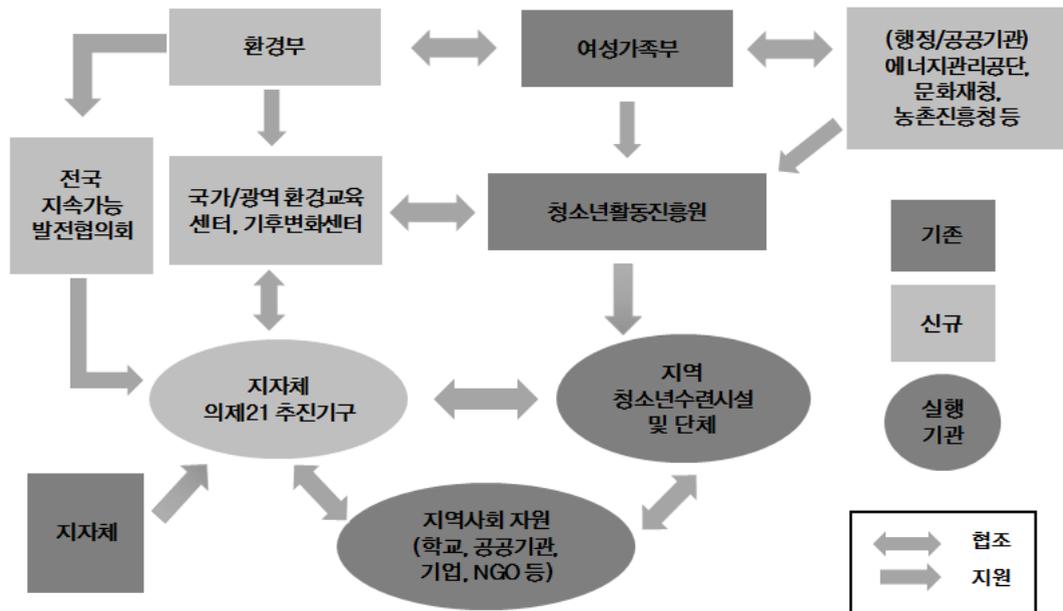
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거둔 성과를 향후 지표로서 적극 관리 및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은 우리사회가 성장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년층은 청소년층에 비해 사회문제 및 관련 활동 참여의향에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청소년과 청년층은 각각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사와 참여의향 정도가 다른 만큼 기존 청소년 활동과는 다른 방식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활동정책 추진체계는 정책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도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에서도 청소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정책 추진체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일부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사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³⁾.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및 관련 당사자의 참여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이러한 협조체계의 부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활동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 기타 지속가능발전 관련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킹과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그림 8).

3) 예컨대 올해 10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경기도 환경교육한마당 행사를 공동 개최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https://www.ggyc.kr:56591/main/main.html>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그림 8】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안)

이처럼 지역사회 청소년·청년 활동 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의 지정을 유도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친화적 도시계획 시범사업 실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SDGs 11)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청소년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미래세대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행복도시조성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삶의 터전인 ‘물리적인 환경’(즉, 도시 공간)에 대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추진력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틀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 계획 차원에서의 청소년 친화적 접근을 고안하기 위한 R&D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의 수정을 추진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삼고 있으며 이는 SDG 11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주제이다. 국토교통부의 R&D 사업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에 의해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성이 있는 접근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기획연구 기간이 보통 2년 내외임을 감안하여, 연구내용으로는 청소년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문헌 조사, 해외사례 조사, 국내 적용 가능 사례조사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안 도출을 목표로 할 수 있다.

6)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청소년 지표 추가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는 아직까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소년 천 명당 청소년여가 시설 수(생활 인프라), 청소년 도시계획 제안실적을 지표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여가시설은 기본적인 청소년 복지 인프라에 해당하며, 청소년 도시계획 제안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계획 조성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7) (가칭)“SDGs와 청소년 주간” 운영

본 연구에서는 SDGs에 대한 청소년 체험·행사 활동으로 아일랜드의 One World Week을 벤치마킹하여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간은 7일 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일부 일정은 청소년 박람회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주간의 내용은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퍼포먼스 등 홍보활동과 발표회, 토론회, 포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학술, 민간 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공·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행사 참여도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재경, 김동영, 이정임, 이양주, 송미영, 김희연 외 (2013).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교육부 (2016). 에너지 자립학교(eS 스쿨) 시범사업 추진. 보도자료(2016. 5. 12).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대한민국 (20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 여성가족부 (2015a).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요약).
- 오수길, 윤경효 (2016a).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2011-2015. 서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오수길, 윤경효 (2016b).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지역보고서(부천). 서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환경부 (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내 인터넷 검색자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https://www.ggyc.kr:56591/main/main.html>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http://ncsd.go.kr> 에서
2016년 2월 12일 인출.

굿네이버스 사이트.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우리 모두를 위한 목표.

<http://campaign.goodneighbors.kr/main/gnwebzine/2015/12/specialreport.asp> 에서
2017년 1월 3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법(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B%B2%95> 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UNCED(1992). 의제 21 전문(국문 번역본).

http://unep.or.kr/sub/sub05_02.php?mNum=5&sNum=2&boardid=data2&mode=view&idx=8 에서 2016년 5월 11일 인출.

[외국 인터넷 검색자료]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youthstrategy.html> 에서 2016년 2월 12일 인출.

UN SG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ports/SG_Synthesis_Report_Road_to_Dignity_by_2030.pdf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un-documents.net/wced-ocf.htm>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정책방안』에 대한 토론문

전 성 민(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총회는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⁴⁾(이하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2030 의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빈곤을 해결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든 이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인류공동목표(Global Goals)의 실천지표이다.

이 의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일상생활 보장.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의 변화주체로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기회의 제공. 셋째 국제청소년사업의 지표 제공이다.

지속가능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⁵⁾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안전사고, 만성적 위협, 몰이해 및 고정관념으로 구성된다.

변화주체(주요집단)와 관련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 21⁶⁾은 25장(지속가능발전에서 아동과 청소년)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5.1(서문)은 “... 환경, 발전에 관한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제 21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분야 중 첫 번째 부분 ‘A. 환경보호 및 경제·사회적 발전의 증진에서 청소년의 역할증진 및 적극참여’는 청소년의 역할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내용은 행동기조(25.2-25.3), 목표(25.4-25.8), 활동(25.9-25.10), 실행

4)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0/1)

5) 국가안보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간안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됨.

6)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2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Rio de Janeiro, Brazil, 3to 14 June 1992).

방법(25.11)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청소년사업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청소년활동이다. 이는 세계화추세의 지구촌이 공감하는 정책지표에 의해 협력하고 경쟁하게 된다. 향후 15년 간 SDGs는 청소년정책지표로서 청소년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2030 의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외 기관(단체)에서는 정책과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조금 늦기는 했으나 매우 시의적절하고 청소년분야에서는 도전적인 시도로 6차청소년기본계획에 반영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대상을 유엔의 기준에 의거, 15세부터 24세로 선정한 것은 추후 국제수준의 모니터링을 예상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구분한 청소년(15세-18세), 청년(19세-24세)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여야겠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대두되는 사항으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미래’ 혹은 양쪽의 통합적 접근 등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세부목표의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빈곤, 보건, 취업, 생태환경 등 만성적인 위협요소는 물론, 우선순위와 ‘연령차별’, ‘성차별’, ‘세대 간 이슈’ 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몰이해와 고정관념은 ESDs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정책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와 환경분야 관련 목표들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코호트⁷⁾에 의한 맥락적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과 활동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제21추진기구 소속으로 미래세대위원회를 운영할 때 전제조건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동반자로서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화재단, 도서관협의회, 청소년재단

7) 이와 관련해서, Adolescence, Youth, Emerging Adulthood를 우리 용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등 지역사회의 중간조직 간 네트워크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자께서 (가칭)미래세대 구상(Future Generation Initiative)을 제안하셨는데, 원론에 찬성하면서 현상학적 시각에서 ‘Future’를 ‘Young’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넷째, 의제 2030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및 활동관계자들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실천활동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에 소개된 시점에 전문가들 간에 ‘지속가능한’이나, ‘지속가능이나’ 혹은 ‘발전’이나 ‘개발’이나를 놓고 긴 기간 토론이 있었다. 이 때 나타난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개념의 불명확성, 환경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조,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이질적 중점 과제로 정리되고 있다.⁸⁾ 청소년계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169개의 세부목표 중, 목표 4.7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청소년활동의 영역과 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국제청소년사업은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연대실천활동 전개, 새로운 가치와 정책개발을 위한 다자 간 회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에 제시한 주제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여섯째, ‘2030년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⁹⁾를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를 대분류 항목으로 승격시키면서,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께서도 제안하시는 바, 우리 청소년계도 평가와 추가지표반영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향하여-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2008.

9) United Nations. Addis Ababa Action Agenda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13-16, July, 2015)

발표 2

.....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과 세대통합역량 증진 방안¹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의 쾌거를 이룬 한국사회의 이면에는 지역공동체의 붕괴, 민주인식 약화, 연고주의의 강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만연해 있다(김미숙 외, 2012: 27). 이 같은 사회갈등은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인종, 종교 등 제반 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나타난다(김미숙 외, 2012).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 계층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이 지역적, 이념적, 계급적 갈등을 넘어 세대갈등으로 급속히 이동한다는 분석(서용석·전상진, 2013: 2)도 제기된다.

실제로 세대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우려는 무척 깊다. 지난 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50.1%를 차지했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12.30.).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에 갈등이 많다는 응답이 84.8%에 달했다(정경희, 2013). 이 같은 조사결과는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세대갈등을 체험하며, 갈등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할만한 대목은 이러한 세대갈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학적 변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 그리고 경제의 저성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19명 선에 머물러 있는 저출산 문제와

10)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고유과제로 수행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37%에 달하게 되는 고령화 문제는 ‘세대’ 이슈와 직결되어 있다(한겨레, 2015.2.10.; 홍영란 외, 2015: 3에서 재인용).

사회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서용석·전상진, 2013: 2). 그렇지만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대립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자본인 공적 신뢰의 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홍영란 외, 2015: 4). 이러한 연유로 다양한 세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는 사회구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미숙 외, 2012).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세대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세대통합이란 갈등을 부정하거나 모든 세대가 획일화·일원화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통합은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서 여러 세대 혹은 다양한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McClusky, 1990; 홍영란 외, 2015: 9에서 재인용),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상태를 지칭한다(홍영란 외, 2013, 2014; 홍영란 외, 2015: 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세대통합은 다원화 된 현대 사회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도출(김미숙 외, 2012)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들어 사회 각계에서 세대 간 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2015년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령사회 대책 중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의 주요 과제로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제시(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12.9.)함으로써, 세대통합에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세대통합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세대통합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세대격차가 주로 기성세대인 아날로그 세대와 신세대인 디지털 세대 사이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 의식, 행동의 격차 및 소통의 부재에서 유발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령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여가 및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강조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연유로 일각에서는 그간 수행된 고령화 문제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관한 연구들이 ‘제한된 접근방법’을 취했다고 지적한다(홍영란 외, 2015: 4).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정책대상 측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에 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이 주로 노년층에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의 간극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세대통합의 주요한 중심축인 젊은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삼아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연구범위 측면에서 세대통합역량 증진의 방안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기실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성적 측면(hard infrastructure)에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개선과 연성적 측면(soft infrastructure)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강화가 맞물려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 배분 문제의 개선,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권위의식 완화,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아울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연성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세대통합을 이루는 데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기회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지금(허세나, 2016: 3-4), 세대 간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이 같은 태도와 역량이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된 지금, 세대문제는 더 이상 경로효친(敬老孝親)과 같은 도덕적·당위적 수준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세대문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연계된 현실의 문제이며(김희삼 편, 2015), 일상적 삶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따라서 세대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세대 간, 사회구성원 간 신뢰는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안전망이며,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밑바탕이다(허세나, 2016: 3).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이 같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세대통합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및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세대통합역량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은 홍영란 외(2014)에서 정의한 세대통합성의 개념을 준용하여,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동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최대화 하려는 협력적 태도와 역량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 연구 방법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2016년 수행된 연구과제에서는 ①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분석, ②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③양적 분석(2차 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현실적합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본 고에서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하며, <표 1>에 설문조사 개요를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용 |
|-------|--|
| 조사대상 | • 전국의 중고등학생 |
| 표집틀 | • 확률표집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한 층화다단계접락표집법 적용) - 지역(17개 시도) 및 학교급(중고등학교), 학교유형(일반계고, 특성화고)을 고려한 확률 표집 |
| 표본수 | • 6,000명 (최종 분석대상 사례수 n=6,653명) |
| 조사방법 | • 학급을 통한 집단조사 |
| 조사시기 | • 2016.5~2016.8. |
| 조사내용 | •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 • 세대통합역량(세대이해 역량, 세대공감 역량, 세대소통 역량, 세대협력 역량) • 세대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 •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 일반적 역량 및 심리정서적 발달 수준 • 사회인구학적 배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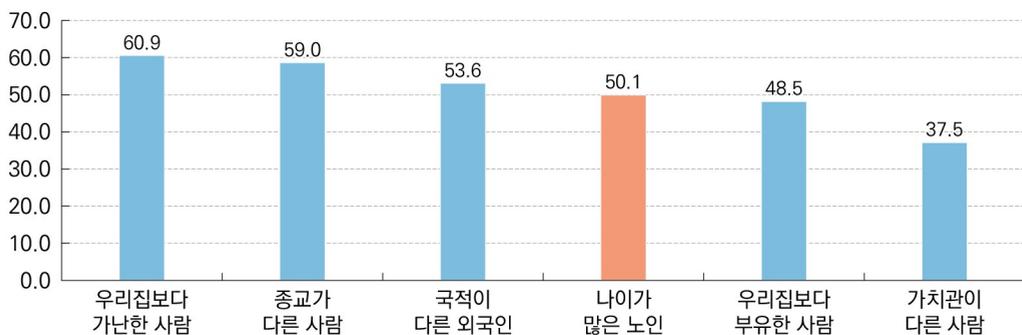
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 수준과 세대통합역량 증진 요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

(1) 고령자에 대한 친밀감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세대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을 제시하고 각 집단을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가깝게 느낀다’(약간 가깝게 느낀다+매우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시된 집단 가운데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다르거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 많은 노인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량(50.1%)은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반면,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전혀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별로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약 50%를 차지하였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낮게 도출된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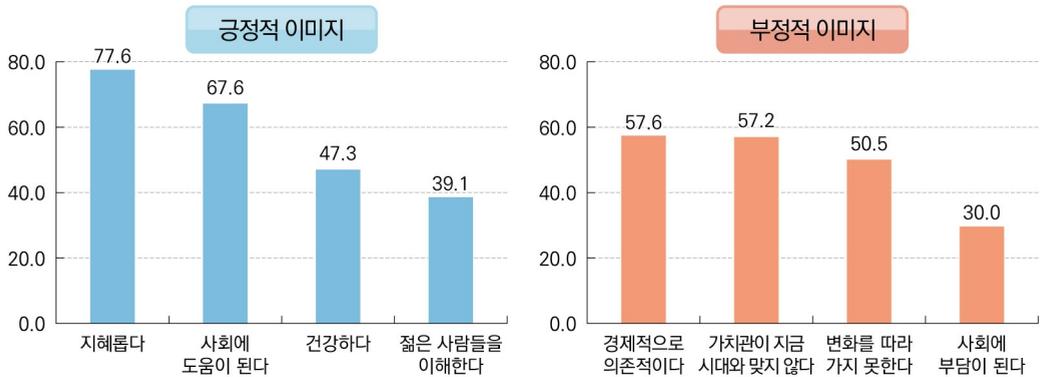


주: 제시된 비율은 각 집단에 대해 ‘가깝게 느낀다(약간 가깝게 느낀다+매우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그림 1】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친밀감

(2) 노인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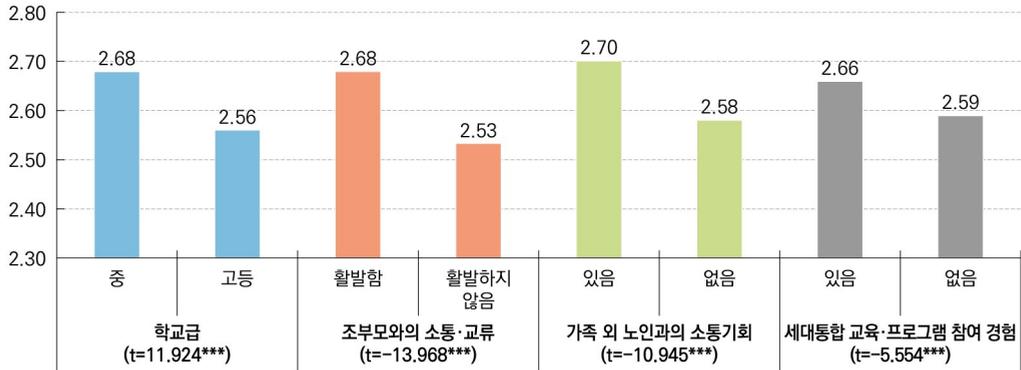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이미지는 노인 세대와의 교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그림 2]에서 [그림 4]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4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노인 세대가 지혜롭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부정적 이미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4개 문항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고, 가치관이 지금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참조).



주: 제시된 비율은 각 문항별로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응답자 비율임.

【그림 2】 노인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이 같은 인식은 노인 세대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평소에 (외)할머니/할아버지와 전화연락을 하거나 찾아뵙는 등 소통 및 교류가 활발할수록,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할 기회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노인들과 접촉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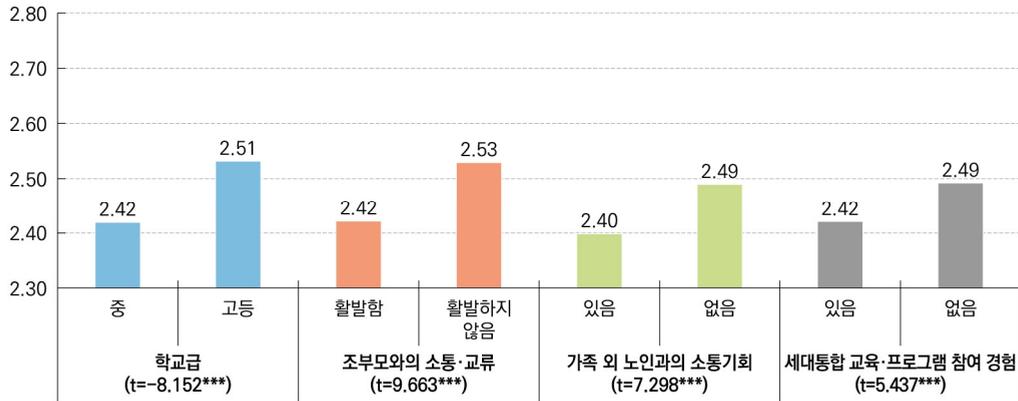


주: 제시된 수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그림 3】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평균 점수 비교

[그림 4]에는 학생의 주요 특성별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노인들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안팎에서 노인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회심리학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인 사회접촉가설(social 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집단 간 접촉 및 교류 부족에 따른 정보의 제한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38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비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Wilder, 1978; 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386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접촉가설을 세대 문제에 적용해보면, 노인 세대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일수록, 노인 세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Caspi, 1984; 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386에서 재인용) 막연하게 세대 간에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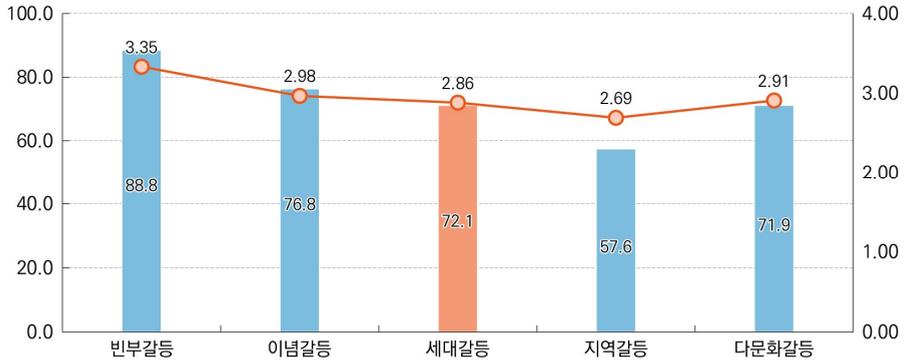
주: 제시된 수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그림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평균 점수 비교

2) 한국사회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1) 세대갈등의 심각성

앞서 노화와 노인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괄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점검해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1%(약간 심각하다 56.6%+매우 심각하다 15.5%)가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지역갈등(57.6%)이나 다문화갈등(71.9%)이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보다 더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청소년의 대다수가 세대갈등을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 막대그래프는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 점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을 나타냄.

【그림 5】 세대갈등의 심각성 인식 수준

(2) 세대갈등의 원인

청소년의 대다수가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이처럼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먼저, 가장 주된(1순위)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라고 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세대 간 소통 부족’ 23.6%, ‘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 13.9%, ‘세대 간 문화적 경험 차이’ 13.8%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사고방식 차이나 소통 부족, 문화적 경험 차이 등은 모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한 것일 수 있다. 그에 비해, 아직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 진입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경기 침체나 일자리 부족을 3위의 원인으로 거론한 점은 이색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 들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분배를 둘러싼 이슈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청(老靑)갈등을 논의의 프레임으로 제기하며 보도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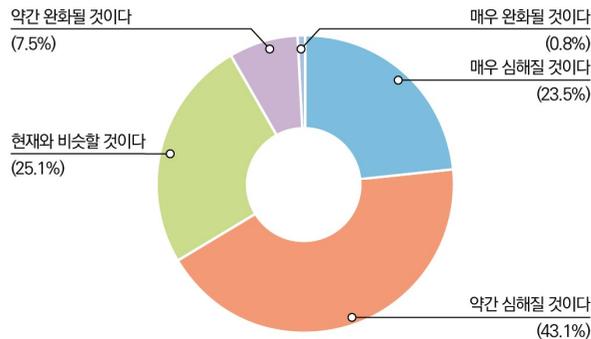
한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한 결과를 모두 종합한 중복응답 분석 결과에서도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가 69.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세대 간 소통 부족’ 59.0%, ‘세대 간 문화적 경험 차이’ 49.1%,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 29.2%, ‘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 28.9%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그림 6】 세대갈등의 원인(단위: %)

(3) 세대갈등 심화에 대한 전망

청소년들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66.6%로 전체 응답자의 2/3를 차지했고,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나머지 25.1%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23.5%를 차지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세대갈등을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

3)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경험

(1) 조부모와의 소통 및 교류 경험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노인 세대와 얼마나 소통하고 교류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노인 세대와의 교류는 (친/외) 할머니·할아버지와 평소에 얼마나 소통·교류하는지, 그리고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함께 활동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조부모와의 소통 및 교류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에 응한 6,653명의 응답자 가운데 ‘(친/외)할머니/할아버지가 모두 안 계신다’고 답한 268명과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71명을 제외한 6,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와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하다(약간 활발하다+매우 활발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1.9%를 차지했고, 활발하지 않다(전혀 활발하지 않다+별로 활발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38.1%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2/3 가량은 스스로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1/3 가량은 별로 소통·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친/외)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소통이나 교류 수준 (단위: 명(%))

| 내용/구분 | | 전혀 활발하지 않다 | 별로 활발하지 않다 | 약간 활발하다 | 매우 활발하다 | χ^2 |
|-------------------------|------|------------------|------------------|-------------|-------------|----------------------|
| 전체 | | 643(10.2) | 1,762(27.9) | 2,453(38.8) | 1,457(23.1) | - |
| 성별 | 남 | 368(11.2) | 939(28.5) | 1,295(39.3) | 697(21.1) | 18.775*** (d.f=3) |
| | 여 | 275(9.1) | 824(27.3) | 1,158(38.4) | 760(25.2) | |
| 학교급 | 중학교 | 264(8.8) | 746(24.8) | 1,161(38.7) | 832(27.7) | 83.426*** (d.f=3) |
| | 고등학교 | 379(11.4) | 1,016(30.7) | 1,292(39.0) | 625(18.9) | |
|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 있음 | 182(8.3) | 559(25.5) | 855(38.9) | 600(27.3) | 44.526*** (d.f=3) |
| | 없음 | 452(11.1) | 1,197(29.3) | 1,589(38.9) | 851(20.8) | |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및 교류 경험

〈표 3〉에는 평소에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활동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함께 대화나 활동할 기회가 없다(전혀 없다+별로 없다)는 응답이 68.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함께 할 기회가 있다(약간 있다+자주 있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특히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24.5%로 전체 응답자의 1/4에 달했다. 이 같은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 및 교류 기회는 학교급,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수준, 세대통합 교육 또는 활동 참여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중학생은 가족 이외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 기회가 있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한 반면, 고등학생은 27.4%에 그쳤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고등학교일수록 노인 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소에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한 청소년일수록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대화나 활동 기회도 더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친/외)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소통·교류가 활발하다고 답한 청소년은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나 활동 기회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7%에 달한 반면,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청소년은 그 비율이 15.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세대와의 접촉에서도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노인 세대와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 안팎에서 그러한 경험을 더 많이, 더 자주 갖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가족 내에서도 또 가족 밖에서도 노인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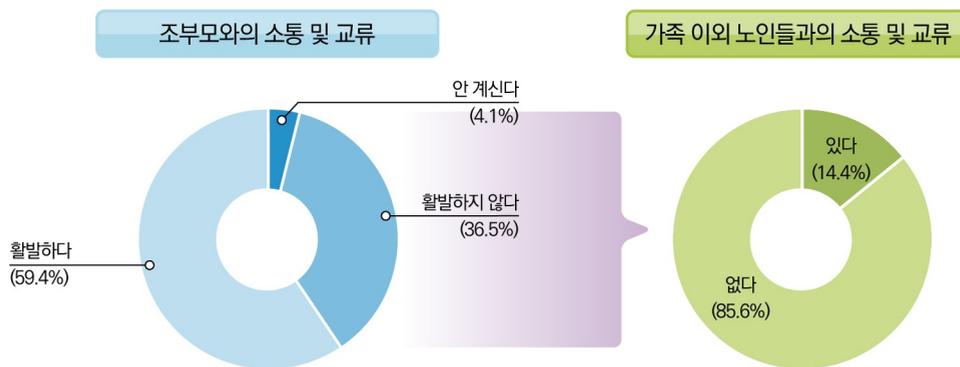
표 3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의 대화나 활동 기회

(단위: 명(%))

| 내용/구분 | | 전혀 없다 | 별로 없다 | 약간 있다 | 자주 있다 | χ^2 |
|----------------|---------|-------------|-------------|-------------|-----------|-----------------------|
| 전체 | | 1,623(24.5) | 2,930(44.2) | 1,489(22.4) | 592(8.9) | - |
| 학교급 | 중학교 | 604(19.4) | 1,397(44.8) | 785(25.2) | 330(10.6) | 100.630*** (d.f=3) |
| | 고등학교 | 1,019(29.0) | 1,534(43.6) | 704(20.0) | 262(7.4) | |
|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 활발함 | 607(15.5) | 1,631(41.7) | 1,146(29.3) | 525(13.4) | 740.336*** (d.f=3) |
| | 활발하지 않음 | 1,016(37.3) | 1,299(47.7) | 343(12.6) | 67(2.5) |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8]에는 평소 가족 내에서 노인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청소년들이 가족 밖에서 나이든 세대와 얼마나 소통·교류하는지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조부모가 안 계시거나 평소 조부모와의 소통·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족 이외의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활동할 기회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14.4%만이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답했고, 85.6%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4.7%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노인들과 함께 소통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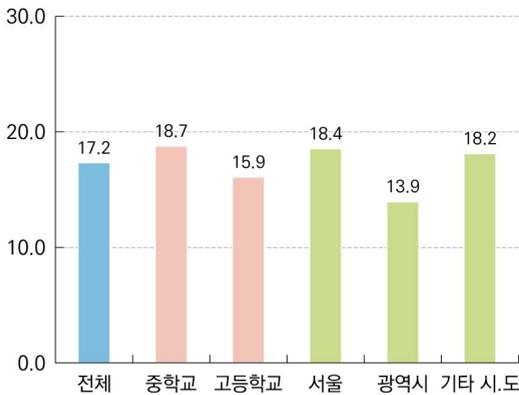
【그림 8】 조부모 및 가족 이외 노인들과의 소통 및 교류

4) 세대통합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세대통합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e.g. 홍영란 외, 2013, 2014,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핵심 지원 방안으로 간주하고,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보았다.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 관련 실태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참여 경험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유형, 주관적인 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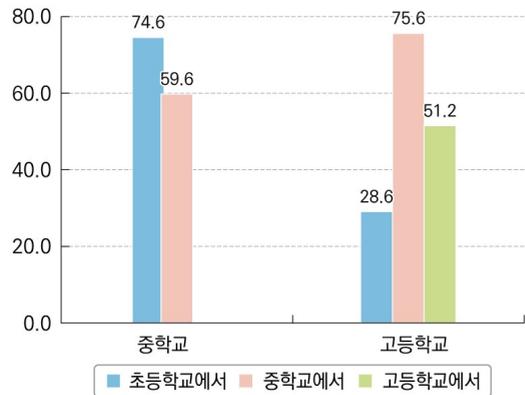
(1)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경험

[그림 9]에는 학교에서의 세대통합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¹¹⁾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7.2%만이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2.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학교를 통한 세대통합교육은 활성화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주: 학교급별 차이 검증 결과 $\chi^2=9.099(p<.01, df=1)$
지역규모별 차이 검증 결과 $\chi^2=15.889(p<.001, df=2)$

【그림 9】 학교에서의 세대통합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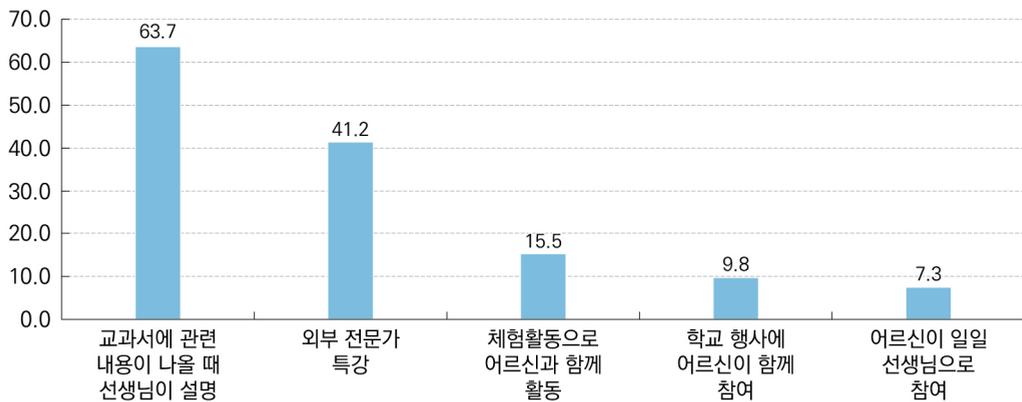
【그림 10】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시기(중복응답)(단위: %)

선진국의 세대통합교육 우수 사례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세대통합교육이 이론보다 실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가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함께 만나 접촉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e.g. 홍영란 외, 2013: 178-179). 이에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보았다.

조사 결과, ‘교과서에 노인 공경이나 세대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세대통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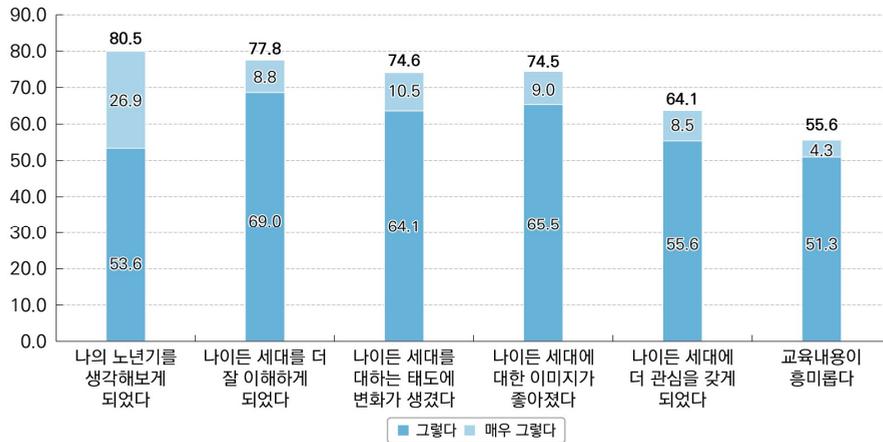
11)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란 노인 세대의 특성,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공감·협력, 세대 간 갈등 극복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특강'으로 진행되었다는 응답이 41.2%로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체험활동(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15.5%, '학교 행사(예: 운동회, 소풍 등)에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은 9.8%, '할머니/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이 일일 선생님이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7.3%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은 교사의 강의나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주종을 이루며, 노인 세대와 함께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접촉하는 기회는 무척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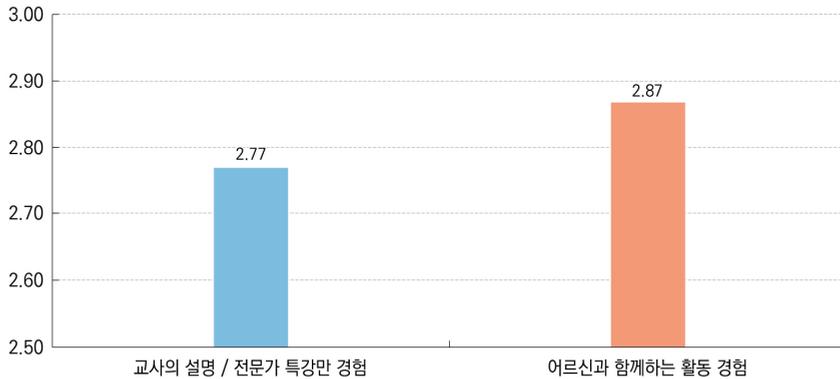
【그림 11】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중복응답)(단위: %)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육을 받고 '나의 노년기를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77.8%,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74.6%,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74.5%, '나이든 세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64.1% 등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교육내용이 흥미롭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55.6%가 동의하는 입장(그렇다 51.3%+매우 그렇다 4.3%)을 나타냈다.



【그림 12】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효과(단위: %)

[그림 13]에는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방식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 동안 경험했던 세대통합교육이 교사의 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나이트 세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나이트 세대와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교사의 설명이나 전문가의 특강만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방식에 따라 세대통합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대통합교육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대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6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2) 집단 간 검증 결과: $t = -2.385(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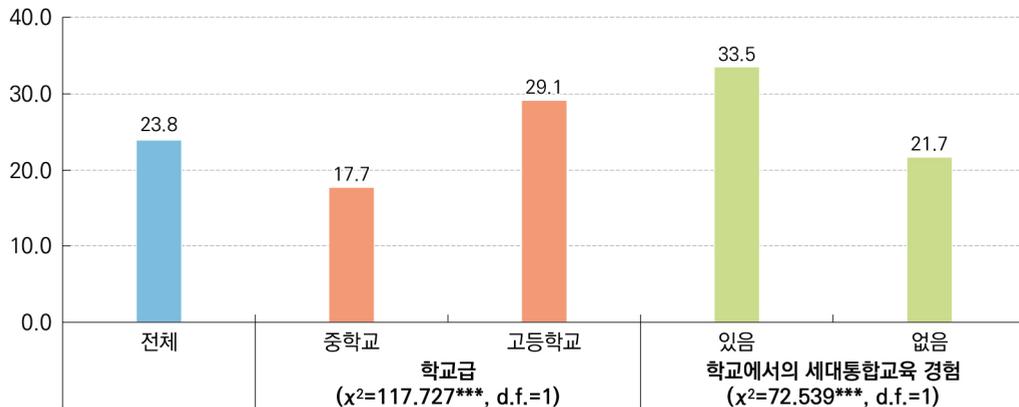
【그림 13】 교육방식에 따른 세대통합교육 효과 평균 비교

(2)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활동)은 그 특성 상, 그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들에 대해서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학교 외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학교 밖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8%가 이 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17.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서, 그간 세대통합교육이나 활동이 학교 보다는 학교 외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학교 외 기관에서의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은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중학생(17.7%)에 비해 고등학생(29.1%)의 경험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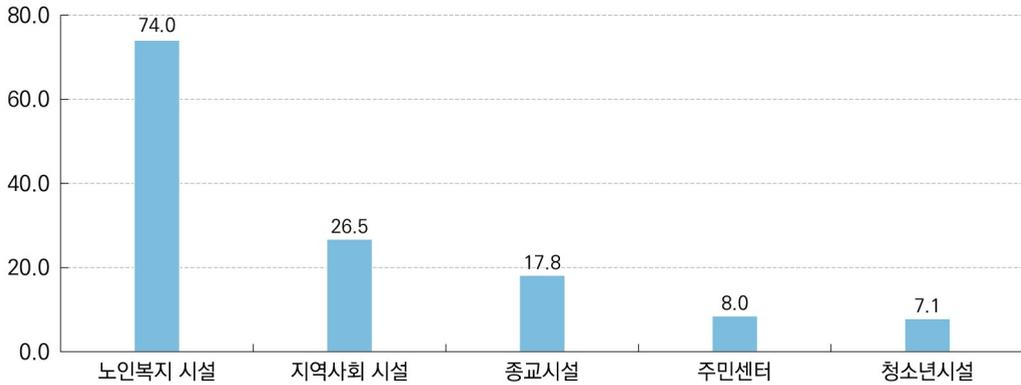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33.5%)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21.7%) 간에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세대갈등이나 세대통합,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활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 제시된 수치는 학교 밖에서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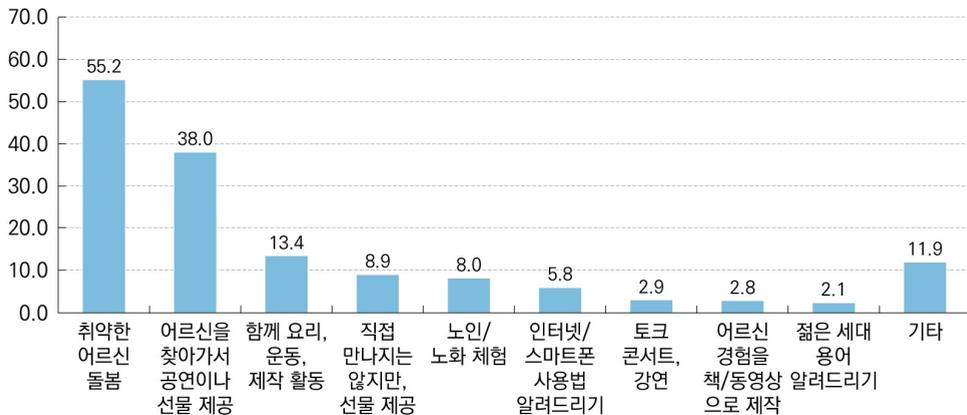
【그림 14】 학교 외 기관에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학교 이외 다른 곳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이루어진 기관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센터/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또는 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설’이라는 응답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이라는 응답이 17.8%, ‘동네 주민센터’에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은 7.1%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이 청소년과 노인 세대가 동등한 관점에서 함께 만나 활동을 하기 보다는, 노인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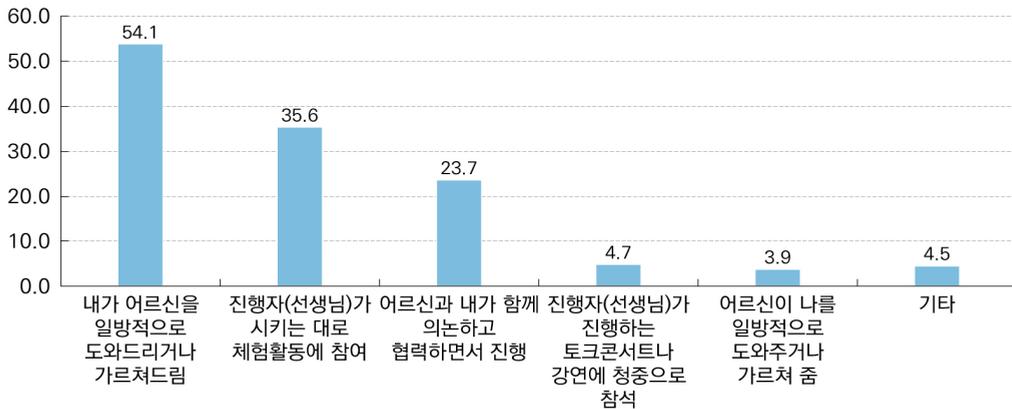
【그림 15】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참여 기관(중복응답)(단위: %)

학교 외 여타 기관에서 참여했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저소득층 노인이나 독거노인처럼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응답이 38.0%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같이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응답은 13.4%를 차지했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그림 16】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내용(단위: %)

질적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그간 참여했던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림 17]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이 일방적으로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가르쳐드렸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차지했고, 선생님이나 진행자가 시키는 대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35.6%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한 프로그램(활동) 내용이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거나, 어르신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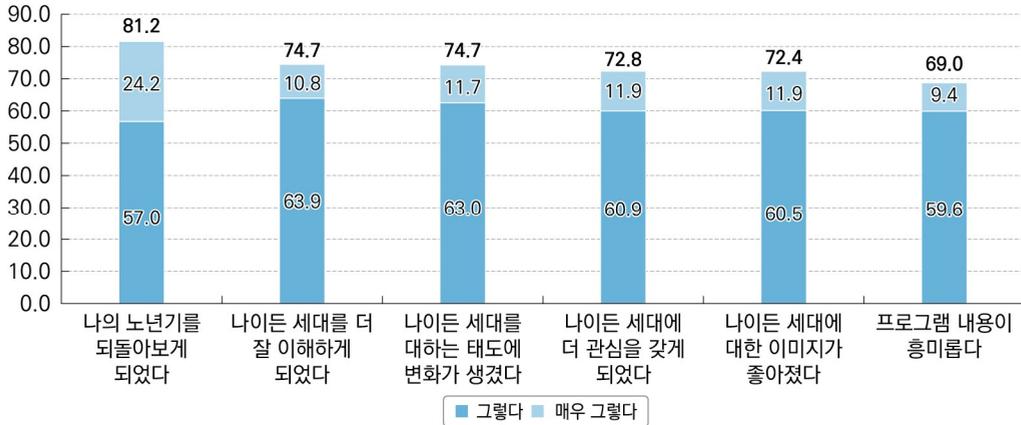


【그림 17】 학교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방식(중복응답)(단위: %)

학교가 아닌 곳에서 노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활동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그림 18]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을 통해 ‘나의 노년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와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한 비율도 74.7%를 차지했다. 그 밖에 ‘나이든 세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72.8%, 72.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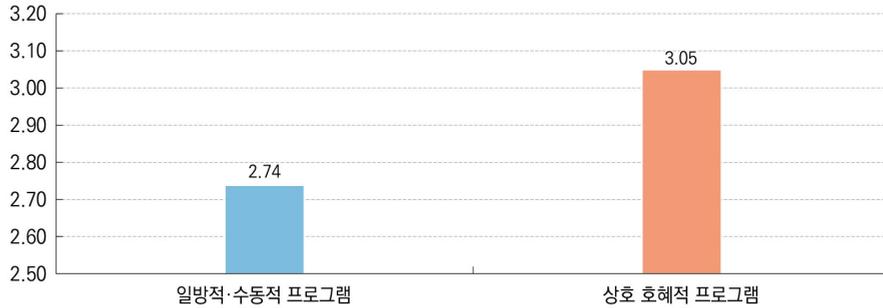
한편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다’는 응답이 6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조사에서 ‘교육내용이 흥미롭다’는 응답이 55.6%에 그쳤던 것에 비해 13% 가량 높은 것이다.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은 선생님의 수업이나 전문가 특강 등 강의식 방법이 주종을 이루는 데 비해,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데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8】 학교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단위: %)

[그림 19]에는 상술한 6개 문항을 압축하여 재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참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운영 방식이 일방적·수동적인 경우와 서로 다른 세대가 의논하고 협력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된 경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눈에 띄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6개 문항의 평균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2) 집단 간 검증 결과: $t=-9.785$ ($p<.001$)

【그림 19】 운영 방식에 따른 세대통합 프로그램(활동) 효과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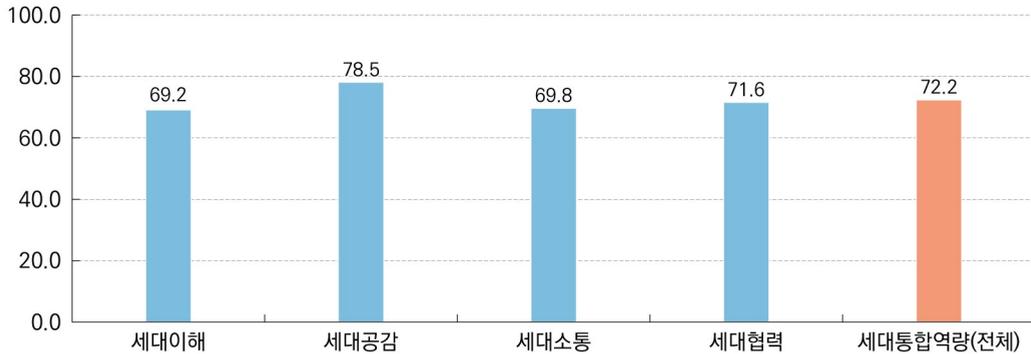
5) 세대통합역량 수준과 영향요인

(1) 세대통합역량 수준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수준을 개괄해보고,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은 기본적으로 홍영란 외(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 요소를 이해, 공감, 소통, 협력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¹²⁾ 각 요소별 측정문항은 ‘이해’ 5문항, ‘공감’ 5문항, ‘소통’ 6문항, ‘협력’ 4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세대통합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대통합역량 수준은 평균 72.2점을 나타내 청소년들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소통·협력하는 역량이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역별로는 공감 영역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고, 이해와 소통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노화와 노인의 특징, 노인세대가 살아온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노인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향후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이해부터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2) 세대통합역량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본원 2016년 고유과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제Ⅲ장의 3절(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참조하기 바라며, 세대통합역량 개념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 및 문항 개발 근거에 관한 내용은 동 보고서 제Ⅴ장 1절(조사 개요)을 참조하기 바란다.



주: 제시된 수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임.

【그림 20】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역별 비교

(2) 세대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다양한 문항들을 토대로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세대통합역량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 분석에는 앞서 제시한 실태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231개교 학생 6,653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I 은 다층모형 분석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무조건부(unconditional model)이며, 모델 II~모델 V 에 걸쳐 순차적으로 설명변인을 투입하였다. 먼저, 모델 II 에 투입된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 자아존중감, 관계형성역량, 시민의식이 세대통합역량 수준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세대통합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b=1.719, p<.001$),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관계형성역량, 시민의식이 양호할수록 다른 세대와의 세대통합역량도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화·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 변인 중에서는 노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세대통합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세대통합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활동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은 증가하는 현실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부모 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세대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부모님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모님과 자녀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에 비해 ‘부모가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 세대통합역량은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자녀가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부모 부양비용에 대한 분담 의사와 세대통합역량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으로 부모를 지원할 의향이 강한 경우, 전반적인 세대통합역량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의 세대갈등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2016.08.25.).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의 확대 등 부모에게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그로 인한 부모-자녀 세대의 갈등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의 수준과 세대통합역량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차 학생의 결혼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부모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부모님이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집단과 ‘내가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전부 또는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세대통합역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고, 부모 부양 부담은 기피할수록 세대통합역량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난 결과는 세대통합역량은 경제적 요인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세대통합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한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세대통합역량이 더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른 세대와 관계를 맺는 데도 광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도 세대통합역량에 정적(positive)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나이든 세대와의 이해·공감·소통·협력 역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세대와의 접촉 경험과 관련해서는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가족 외 노인과 소통기회 변인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만족했던 경험은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소 조부모와 소통·교류가 활발할수록, 그리고 가족 외 노인들과 소통 기회가 있을수록 세대통합역량을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세대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경험이 세대통합역량을 함양하는 데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델Ⅲ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통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여타 조건을 통제했을 때,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은 세대통합역량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델Ⅳ에서 살펴본 학교 밖에서 경험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뚜렷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학교 외 다른 기관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세대통합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결과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효과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경우 혹은 진행자가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비해, 노인 세대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세대통합역량 증진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Ⅴ에서는 학교급과 지역 규모 등 학교 특성이 반영되었는데,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는 이전 단계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평균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울에 비해 광역시 및 기타 시·도에 소재한 학교의 평균 세대통합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모델 IV | | 모델 V | |
|------------------------------|-----------|------|-----------|------|-----------|------|-----------|------|-----------|------|
| | b | se |
| 절편(전체평균) | 72.482*** | .174 | 68.229*** | .341 | 68.275*** | .342 | 68.069*** | .337 | 66.800*** | .434 |
| 개인수준 변인 | | | | | | | | | | |
| 성별(여=1) | | | 1.719*** | .211 | 1.714*** | .210 | 1.576*** | .209 | 1.603*** | .210 |
| 자아존중감 | | | .552** | .177 | .584** | .177 | .548** | .176 | .598** | .179 |
| 관계형성역량 | | | 3.603*** | .308 | 3.593*** | .310 | 3.581*** | .306 | 3.531*** | .308 |
| 시민의식 | | | 3.721*** | .298 | 3.665*** | .299 | 3.582*** | .299 | 3.565*** | .297 |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 | 5.658*** | .277 | 5.709*** | .283 | 5.732*** | .277 | 5.800*** | .279 |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 | -4.440*** | .240 | -4.398*** | .242 | -4.362*** | .243 | -4.381*** | .246 |
| 부모 부양비용 인식_ 부모가 주로 부담해야 함 | | | -.078 | .345 | -.122 | .351 | -.136 | .344 | -.211 | .348 |
| 부모 부양비용 인식_ 자녀가 주로 부담해야 함 | | | 1.402*** | .241 | 1.401*** | .245 | 1.392*** | .241 | 1.407*** | .245 |
| 자녀 결혼비용 인식_ 부모가 주로 부담해야 함 | | | -.962* | .417 | -1.032* | .419 | -.967* | .419 | -1.078* | .422 |
| 자녀 결혼비용 인식_ 자녀가 주로 부담해야 함 | | | .108 | .240 | .069 | .239 | .135 | .240 | .043 | .242 |
|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 서로 의견존중 및 타협 | | | .695** | .262 | .665* | .265 | .668* | .266 | .606* | .270 |
|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응_ 일방적 조정 및 대화 회피 | | | .350 † | .207 | .310 | .209 | .201 | .210 | .149 | .211 |
| 부모와의 관계 | | | .978*** | .198 | .997*** | .198 | .925*** | .198 | .926*** | .198 |
| 조부모와의 동거경험_불만족 | | | -.606 | .386 | -.589 | .388 | -.658 † | .392 | -.634 | .398 |
| 조부모와의 동거경험_만족 | | | 1.912*** | .201 | 1.905*** | .200 | 1.800*** | .206 | 1.791*** | .205 |
| 조부모와의 소통·교류 활발 | | | 1.626*** | .190 | 1.590*** | .193 | 1.640*** | .188 | 1.656*** | .188 |
| 가족 외 노인과의 소통기회 | | | 1.554*** | .205 | 1.505*** | .207 | 1.240*** | .207 | 1.265*** | .208 |
|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_강의식 | | | | | .291 | .276 | - | - | .284 | .281 |
| 학교 내 세대통합교육_활동식 | | | | | .802 | .521 | - | - | .352 | .510 |
|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_일방적·수동적 프로그램 | | | | | | | 1.594*** | .263 | 1.418*** | .268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모델 IV | | 모델 V | |
|---------------------------|--------|----|--------|----|--------|----|----------|------|----------|------|
| | b | se | b | se | b | se | b | se | b | se |
| 학교 외 세대통합프로그램_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 | | | | | | 2,271*** | .391 | 2,168*** | .394 |
| 학교수준 변인 | | | | | | | | | | |
| 학교급(고등학교) | | | | | | | | | 1,056*** | .226 |
| 지역(광역시) | | | | | | | | | .966** | .306 |
| 지역(기타 시도) | | | | | | | | | 1,018** | .280 |
| 분산 | | | | | | | | | | |
| 개인간 분산(σ^2) | 89,010 | | 51,039 | | 51,019 | | 50,593 | | 50,651 | |
| 학교간 분산(τ_{00}) | 3,867 | | 1,545 | | 1,562 | | 1,264 | | 0,949 | |
| 전체 | 92,877 | | 52,584 | | 52,581 | | 51,857 | | 51,600 | |
| 집단내 상관(ICC) | 0,042 | | 0,029 | | 0,030 | | 0,024 | | 0,018 | |
| 누적설명분산(R^2) | | | | | | | | | | |
| 개인수준 | | | 0,427 | | 0,427 | | 0,432 | | 0,431 | |
| 학교수준 | | | 0,600 | | 0,596 | | 0,673 | | 0,755 | |
| 전체 | | | 0,434 | | 0,434 | | 0,442 | | 0,444 |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비롯해 선행연구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 결과, 세대통합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의 시사점,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기본 관점

(1)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관점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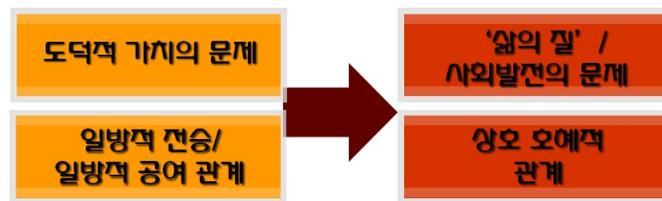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예(禮)나 효(孝)와 같은 도덕적 가치의 회복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수의 고령세대와 함께, 다(多)세대의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노인세대 역시 젊은 세대와 함께 더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세대통합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분열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측면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소통·공감·협력하는 태도와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2) 일방적 공여·전승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세대관계의 전환

본 연구에서는 세대문제와 세대통합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도덕적 가치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세대통합에서 지향해야 하는 세대 간 관계는 일방적 전승이나 공여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라고 보았다. 세대문제를 경로효친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어린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일방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서는 두 세대의 역할이 수혜자와 공여자로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어린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일방적으로 공경하거나, 혹은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승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허새나 외, 2016: 12).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다(多)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도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세대통합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세대 간 관계는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 희생이나 수혜를 담보로 해서는 안 되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21】 세대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대비 본 연구의 관점

2) 주요 정책과제

상술한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에 걸쳐 12개 정책추진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영역별 정책과제들은 [그림 22]와 같다.

1.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1-1.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1-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에 세대 간 교류 내용 반영
 - 1-1-2.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1-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1-2-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반영 및 피드백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 2-1.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 2-1-1.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 2-1-2.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2-2-1.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에 세대통합 내용 반영
 - 2-2-2. 자유학기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제안
- 2-3.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2-3-1. 세대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 2-3-2.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상 컨설팅 실시
- 2-4.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2-4-1.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2-4-2.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3.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3-1.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3-1-1.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통한 연계 강화
 -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 연계
 - 3-1-3.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 3-2.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 3-2-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多)세대 이용
 - 3-2-2.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4.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 4-1.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 4-1-1.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구 실시
 - 4-1-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세대통합 연구 실시
- 4-2.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 4-2-1.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5.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환경 조성

- 5-1.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 5-1-1. 학교-지역사회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5-2.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5-2-1.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그림 22】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상술한 12개 정책추진과제와 22개 세부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간략히 소개한 자료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영역별 주요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 영역 | 주요 정책추진과제 | 주요 세부과제 |
|--------------------------------|----------------------------------|--|
|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세대통합정책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세대통합내용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반영 및 피드백 |
|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연계 |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
| |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의 대(多)세대 이용 - 마을자원목록 제작 및 공유 |
|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확보 지원 | 현장 전문가 대상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 청소년 지도사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
| |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환경 조성 |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세대통합내용 반영

향후 청소년정책에서 세대문제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청소년들의 세대통합역량, 나아가 갈등관리 역량 함양에 관한 정책과제들이 개발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문제는 급속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통합적 역량(혹은 갈등관리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로 ‘세대통합역량 함양’, ‘세대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실시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세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단히 일관되게 세대통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세대통합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세대통합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공감, 소통, 협력 등 세대통합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심층 분석에서도 여타 요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데 독립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보았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학교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를 통한 확산은 많은 학생들이 고루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학교에서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일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교사 대상 의견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세대통합교육은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교육과정에 재구성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교과수업과 연계하는 방법은 별도의 특별활동 형태로 실시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이상준 외, 2015: 66). 어떤 교과와 연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기술·가정’, ‘윤리’, ‘사회’ 교과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세대통합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 시설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 프로그램 교수·학습모형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법으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2-2.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의 하나로 ‘인성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과 연계하되, 공모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를 ‘학교’에 국한하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 측면에서는 ‘세대통합’ 부문을 신설하여 청소년과 중장년, 노인세대와의 소통·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세대통합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본 고에는 지면의 한계로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이 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검토한 해외 사례 중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례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세대통합포럼을 운영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준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세대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칭)「세대통합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6 (가칭)세대통합포럼 운영 방안(안)

| 항목 | 내용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
|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자원들이 참여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자원 연계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 관련 아이디어 도출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등 유아·아동 보육/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고용, 주거,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
| 운영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산출 및 세대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제기된 이슈 해결에 적용 가능한 세대통합적 접근 방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세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다양한 세대의 상호 협력 방안 모색 지속적인 협력 방안 도출 |

(5) 유관 학과 대학(원)생 대상 세대교류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자유학기제나 방과후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세대교류기획자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과제에서 검토한 국내 사례 중 만안청소년수련관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근 대학의 청소년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교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2016년 대학생 20명을 세대교류문화기획자로 양성하여 관내 2개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강사로 투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준용하여, 유관 전공 대학(원)생을 세대교류기획자로 양성하여, 학교의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원)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시수 이상 기획자로 활동한 경우에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6)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미래를 결정해놓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를 오롯이 수용하라는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갈등의 요소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김희삼·김순희(2016:1)는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미래세대를 배려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증가할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이 예측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 모임의 숙의과정을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다(김희삼·김순희, 2016).

이러한 숙의(熟議) 방식을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청소년과 같이 미래세대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2.30). 사회갈등 악화 요인, 2년 연속 '여-야 정치 갈등'(대통합 위,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http://www.pcnc.go.kr/content.do?cmsid=47&mode=view&page=9&cid=5882> 에서 인출.
- 김미숙·김상욱·강신욱·정영호·김안나·조명래·이주연·하태정(2012).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 서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9).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http://precap.go.kr/news_repo_vw.lo?idx=747에서 2016.10.24.인출.
- 문화일보(2016.08.25.). 20대 "쉽게 취직한 부모세대가 우리를 무시"...세대갈등 격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2501071121304001> 에서 2016.10.12.인출.
- 서용석·전상진(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정경희(2013).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4차 고령사회포럼 자료집, 3-49.
- 한겨레(2015.2.10.).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골든 타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7762.html>.
- 한정란·이금룡·원영희(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 허새나(2016). 다(多)세대 사회의 세대통합: 세대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희망제작소 <세대공감 시리즈>를 중심으로. **희망이슈**, 제13호, 1-18.
- 홍영란·김미란·최두진·황여정(2013).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 실태 진단 및 정책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김태준·박중효·이현주·황여정·이지인(201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 미래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김태준·박중효·이현주·황여정·조민지(2015).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III): 개선 방안 및 추진 전략**.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황여정·변정현·전현정(2016).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n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a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47-80.

『청소년의 세대문제 인식과 세대통합 역량 증진방안』에 대한 토론문

박 종 효(건국대학교 교수)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는 ‘세대갈등’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서 세대 간의 의식이나 가치, 태도와 행동은 ‘다름’을 넘어 상대방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이 ‘틀림’을 시발점으로 도처에서 갈등과 다툼이 연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자녀세대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유)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2세대를 넘어 3세대, 4세대까지 확장되면서 ‘다른 세대와 더불어 살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이전세대나 이후세대, 우리 기성세대에게 여전히 낯설 뿐 아니라 도전적이기도 하다.

이에 황여정 박사님의 연구와 발표문은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 연구와 달리,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세대통합의 문제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연구발표 중에서 우리가 재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고, 토론자 입장에서 결과나 결과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그리고 추후연구에서 더 다루어 주시길 바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적신호를 보이지만 동시에 세대 통합에 대한 청신호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친밀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세대 차이를 인식하고 있고 어떤 이념적, 지역적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세대 간 갈등수준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이 경험해 온 삶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노인 세대와의 갈등은 소통 부족, 경험 차이에 근거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청소년 세대의 인식은 본인들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고령자 세대에 얼마나 노출되었고 어느 정도로 접촉했는가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른 세대와 더불어 살기’가 바로 청소년 세대가 자신과 다른 세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관건인 것이다.

둘째, 고령자 세대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가정 내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조성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공식적인 학교교육의 일부로서 다른 세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 통합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다루어질 수 있고 학교 밖 다양한 기관에서의 청소년 활동 역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 세대 간 공유 경험을 중심으로 세대통합 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실천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에 의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이런 통찰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 과연 현행 교육체제와 풍토 속에서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내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건, 지역 내 인프라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중요한 근간은 황여정 박사님이 제안해 주신 정책과 정책 추진 전략을 통해 일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교육제도 및 정책 변화와 세대통합을 위한 청소년 활동의 접목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발표문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어르신 세대를 만나 함께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어려움에 처하신 어르신께 일방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봉사보다는 상호 도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세대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족도나 효과 차원에서 더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세대통합교육이 아직까지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다소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단계별 순차적으로 ‘나와 다른 세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 태도를 갖추어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발달의 원리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학교와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수준과 역량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대통합수준은 향상을 필요로 하며 세대 이해와 소통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홍

영란외, 2015)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세대통합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을 제안해 주고 있다. 세대통합역량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특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부모-자녀의 우호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 세대의 경제적 지원과 부담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조부모와의 동거 그 자체보다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만족/불만족에 대한 청소년 지각이 세대통합역량과 정적/부적으로 관련 있다는 결과이다. 이는 세대 간 노출이나 경험만으로는 긍정적인 인식이나 태도 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험을 의미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의미화 작업에는 청소년 세대보다는 부모세대, 성인세대가 조부모와의 동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주요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유사하게 학교에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자체 역시 세대통합역량을 키우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화나 해석 같은 내면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에 의하여, 청소년 의식조사와 유관 경험 및 영향 변인에 대한 관련성 탐색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제한점이나 추후연구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과성 문제에 관한 것으로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적극적 참여나 활동, 특히 학교 밖 시설에서의 자발적 경험 등이 세대통합역량을 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동시에 세대통합역량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나 체험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었다. 유사하게 노인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역시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이나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이러한 교육이나 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이나 관계는 다소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육이나 개입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검증과정은 필요해 보인다. 종단적 연구설계나 심층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세대통합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나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안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황여정 박사님이 제안해주신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정책추진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해 100% 동의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사회와 학교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세대통합포럼(가치)’ 등의 제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발표 3

.....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이후의 세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술과 정보는 급속하게 유효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인간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DC (인터넷 데이터분석 센터)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만 1천6백10억 기가바이트의 디지털정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정보량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 쓰여진 모든 책에 담긴 정보의 3백만 배이고, 책으로 만들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1인당 6톤씩의 책으로 배분될 분량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2005년에 인터넷에 저장된 정보량은 130엑사바이트(약 1천4백억 기가바이트)였는데, 2010년에는 그 9배인 1제타바이트, 즉 1조 기가바이트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이 정보량이 전년도의 거의 두 배인 1.8제타바이트(1조8천억 기가바이트)로 늘어났다. IDC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5년에는 약 8조 기가바이트(7.9제타 바이트)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IDC, 2013). 기술과 정보량의 증가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중국은 자국 화폐를 기축통화로 등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며, 북아프리카의 튀립혁명은 극단주의로 이어지며 중동의 내전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가 유럽의 통합정책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적인 위기와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원칙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민족주의와 근본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고작 지난 10년간에 벌어진 변화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마주하게 될 10년 혹은 20년 후의 세계는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갈수록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OECD의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전반에 걸쳐 한 개인의 성공은 특정 교과목의 수행수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Rychen & Salganik, 2003a). 이 역량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현 외,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지표 관련 연구가 전무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역량지표 개발 연구를(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역량연구는 대상과 내용 부분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에서도 직업기초능력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을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량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국제 수준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역량 지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들은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학교나 직업생활 뿐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된 역량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다. PISA 및 ICCS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지적인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자기관리 능력과 함께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김기현 외, 2010).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역량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태도와 사고력, 시민사회의 기초상식에 관련된 ‘민주시민역량’이다. 갈수록 가속화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국제화는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마주칠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존중으로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로 이행했고, 시민사회의 전통이 오래된 유럽 각국에서도 최근들어 테러와의 전쟁이나 중동 이민자들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종교충돌과 문화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새로운 극우 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극우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영국 탈퇴는 이와 같은 흐름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시민사회의 합의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세대에게 이전보다 더 민주시민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97년부터 일부 OECD가입국의 주도로 시작된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과 함의가 커지고 있다. ICCS는 참여국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시민교육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이들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국제비교조사이다. ICCS를 실시하는 IEA에서는 각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엄정한 국제비교 절차에 의해 실시하는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 제2차 ICCS 조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 실시하는 제3차 조사에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ICCS 조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중에서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조사의 기회로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향후 이 ICCS 조사의 도구와 절차를 전체 청소년역량 지표에도 반영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1차년인 2014년도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4)’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와 IEA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EA ICCS) 2016와 같이 국제수준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3차 년도 연구이자 2015년도 2차 년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주적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IEA ICCS 2016 본조사를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프로그램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조사결과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2016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시급한 정책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이며,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ICCS 2016의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 ICCS 조사를 수행하였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참여, KEDI에서는 조사 진행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과 자료 준비, 교사워크숍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 본원은 실제 조사 수행과 자료제출 절차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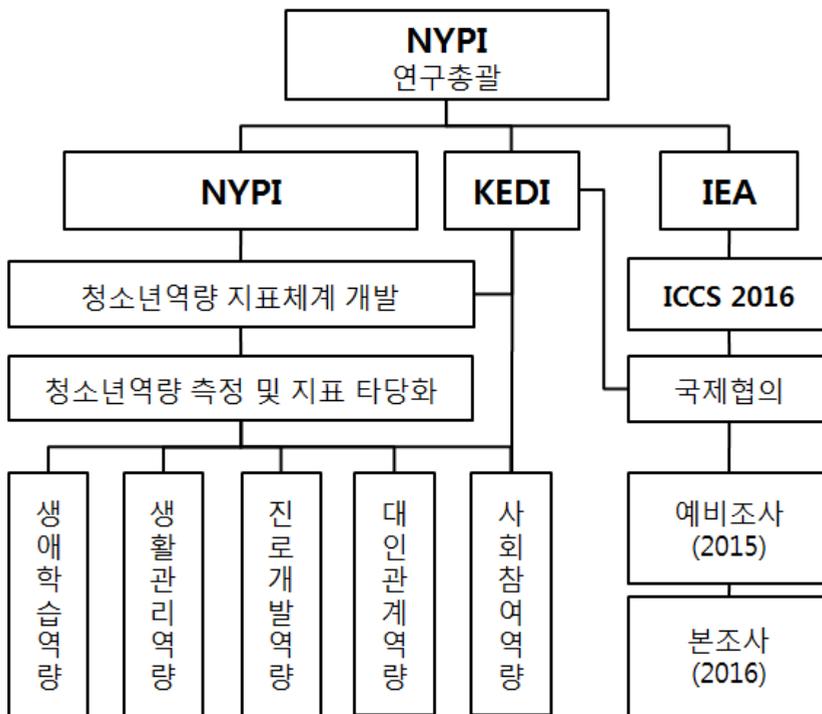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추진체계 개요

2. 연구내용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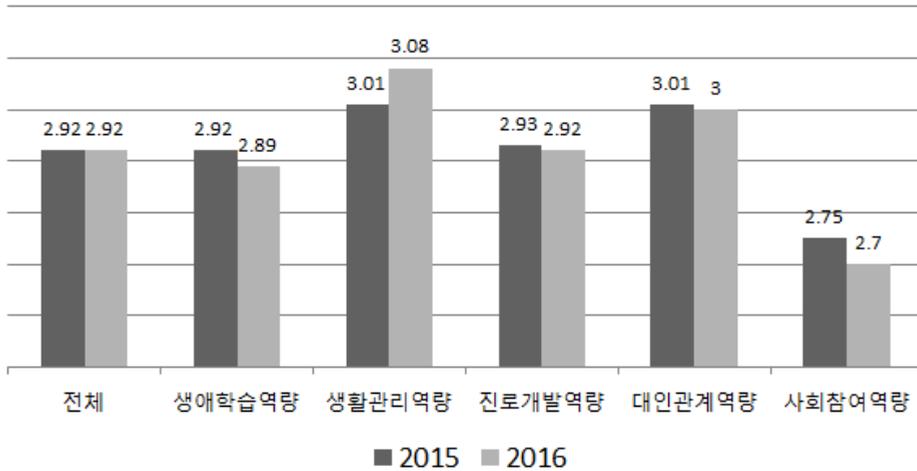
1)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성 분석 결과

2014년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5개 역량군에 대해 234문항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 정규성과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고,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축약문항으로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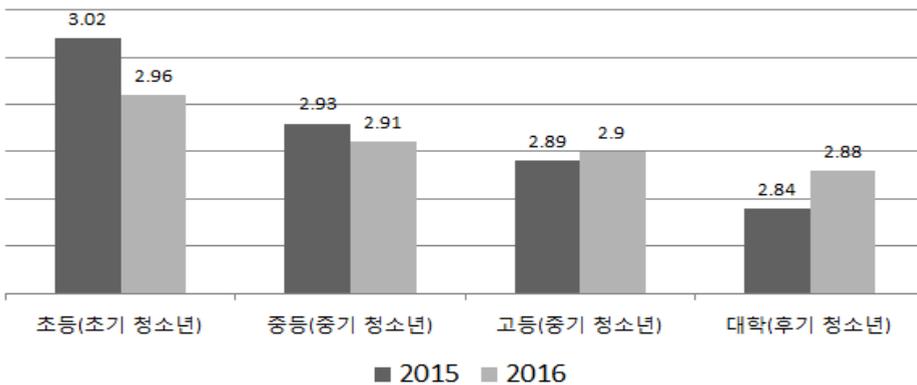
청소년 역량의 5대 영역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측정결과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했다.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들의 구성체제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체문항과 단축문항은 모두 청소년역량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역량 실태조사 결과 요약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31)로 2015년도 조사와 동일하였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72,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77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73,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75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 .67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일부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생활관리역량 지수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높았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뚜렷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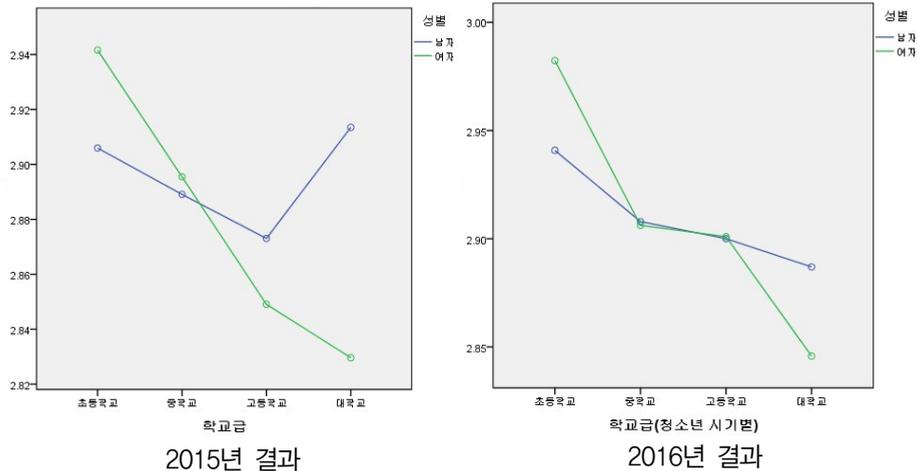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2.96(SD=.36), 74%,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1(SD=.28), 72.75%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0(SD=.28), 72.5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8(SD=.24), 72%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들의 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청소년의 역량이 가장 낮았던 2015년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2015년 조사 대비 초기청소년들의 역량 지수가 낮아지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발달 시기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들이 초등(초기 청소년)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에도 확인된 것으로 한국의 청소년 역량 관련 환경이 여자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현상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준거타당도와 예측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지수의 각 역량군에 따른 변인들은 해당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에 있어 정적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정적관계를 나타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표들이 각 역량이 지향하는 개념적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각 역량군에 따른 수행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한 정적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해당 변인들의 수행변인을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높다는 것이 관련 역량에서 나타나는 행동지표의 양적 횟수가 높고 질적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청소년 역량지수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 분석결과, 2015년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평균이 2.92(SD=.37)이고 2016년 평균이 2.89(.37)로 나타나 효과크기 $d=.08$ 로써 차이가 없었으며 2016년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역시 유의했다. 2016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 발달 단계별 감소세는 확인되었지만

2015년에 비해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년들의 수행행동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높은 청소년이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았고,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다른 수행변인 즉, 학습시간의 양이나 학습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관리역량분석 결과,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생활관리역량이 높았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정서조절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조절실패와 감정인식이 다른 역량에 비해 낮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역량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기 이후 청소년의 정서조절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 지표점수와 실제 생활관리 행동, 생활통제 행동,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 체험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관리 행동인 일주일간 평균 아침식사 섭취 횟수와 운동(신체활동) 빈도가 높고, 수면시간이 충분했으며,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태도, 주변 사람이나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규범,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인지된 생활통제 행동, 체험활동 참여 여부, 참여 종류, 참여 횟수가 높았으며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은 적었다. 회귀분석 결과, 생활관리역량 지수를 통해 생활관리 및 생활통제 행동의 변량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개발역량 분석 결과, 구성된 문항체계의 적합도가 기존 문항보다 높았고, 진로개발역량과 관련 있는 수행변인들과의 관련성도 높게 나와 이에 대한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청소년 성장시기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자기결정능력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등의 수행행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정결과임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여가활용역량이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확인되었으며,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여가활용이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이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의 변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대인관계역량 분석 결과,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으로 구성된 단축형 대인관계역량의 구성체계와 측정문항이 적합함을 확인했

다. 대인관계역량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축형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이 초기 청소년부터 후기 청소년까지의 대인관계역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았다. 청소년 발달 단계별로는 대인관계역량이 차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예컨대, 관계형성 역량은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더십 역량에서는 대학생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 발달 단계별로 증진시켜야 할 대인관계역량이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관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 실시할 때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취수준별, 청소년시기별로 집중 개발해야 할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인관계역량은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주로 생활하는 학교 집단 내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인 대인관계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참여역량 분석결과 사회참여역량 수준은 대학교급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급에서는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역량 수준도 높았으나 대학교급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상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구성 요인중, 개인시민성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급까지 개인시민성 수준이 상승하였으나 대학교급에서 낮아졌음. 상승 및 하락의 정도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에 비하여 작았으나 발달단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역U자 형의 분포는 2015년과 동일했다.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시민성도 높아지던 경향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급에서 사라졌다. 공동체시민성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낮아졌으며 성별효과는 중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여학생이 중등학교급에서 남학생 보다 높은 공동체 시민성을 보여줌.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시민성이 높아졌으나 대학교급에서 그러한 경향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인구특성학적 배경변인의 효과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세계시민성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중등학교급에서 여학생의 세계시민성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2015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성도 높았으나 대학교급에서 상쇄되었다.

4)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분석 결과

현행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역량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정책범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정책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세밀한 역량정책 범주를 정책범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분산된 정책이 아닌 집중화된 효율적 정책수행이 필요하다.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작게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모아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매년 청소년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정책을 지정해서 청소년 정책수행의 과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5차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들과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가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5차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에서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가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5차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한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던 반면,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없었다.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가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5차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위 범주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역량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5차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의 정책이 가장 적었다.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5)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정책현황 분석 결과

영국의 STEM교육 사례는 현대사회에서 융합창조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ICT교육 사례는 현재 사회에서 ICT활용능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미국의 ASELA(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사례는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한국적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분야인 정서조절 역량을 배양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뉴질랜드는 사고하기(thinking), 언어 · 상징 · 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 · symbols ·

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과 같은 여러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했다. 여기서 제시한 생애학습 역량,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같은 여러 하위범주의 청소년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3. 논의 및 제언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수를 축소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정문항을 개발하려는 연구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생애학습역량은 37문항에서 24문항으로, 생활관리역량은 48문항에서 35문항으로, 진로개발역량은 41문항에서 25문항으로, 대인관계역량은 46문항에서 29문항으로, 사회참여역량은 63문항에서 47문항으로 축소되어 234문항에서 총 160문항으로 축소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축소된 청소년 역량지수 문항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측정할 결과,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도가 1, 2차 년도에 개발된 문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더 정교화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측정결과 또한 1-2차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의 단축문항들은 해당 역량군의 관련 변인들과 유사한 측정결과가 나타났고, 해당 역량군을 대표하는 행동지표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했다.

각종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면밀한 해석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예컨대, DIF 분석과 같은 통계학적 분석방법에 더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통해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 청소년의 역량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중·고등학교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역량개발에 장애요

소들이 보다 더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자 청소년 역량의 감소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여자 청소년에 대한 역량관리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등)이나 학교에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융합창의역량 강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STEAM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융합 창의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융합창의역량을 개발 |
| 2. 사업내용 | ○ 청소년 융합창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
| 3. 사업주체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
| 4. 사업추진체계 |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 2017~2018년 :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정보통신활용 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활용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정보통신활용능력을 개발 |
| 2. 사업내용 | ○ 청소년 정보통신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고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
| 3. 사업주체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
| 4. 사업추진체계 | ○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학교, 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 2017~2018년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

|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범주의 역량을 배양 |
| 2. 사업내용 | ○ 학교내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

|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 ○ 개발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
| 3. 사업주체 | ○ 교육부, 교육청, 학교 |
| 4. 사업추진체계 |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 2017~2018년 :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 범주의 역량을 강화 |
| 2. 사업내용 |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
| 3. 사업주체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
| 4. 사업추진체계 |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 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 2017~2018년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7.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 중 리더십 범주의 역량을 강화 |
| 2.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고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
| 3. 사업주체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
| 4. 사업추진체계 | ○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학교, 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18년 :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부분의 관계형성 범주 중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 |
| 2. 사업내용 |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단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
| 3. 사업주체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
| 4. 사업추진체계 |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 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018년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

|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 역량을 배양 |
| 2.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
| 3. 사업주체 | ○ 교육부, 교육청, 학교 |
| 4. 사업추진체계 |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실시 |

|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6. 사업추진일정 | ○ 2017~2018년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
|----------------------------|---|
| 1. 사업목적 | ○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물질기부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 범주의 역량을 배양 |
| 2. 사업내용 | ○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
| 3. 사업주체 | ○ 교육부, 교육청, 학교 |
| 4. 사업추진체계 |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
| 5. 사업추진방법 |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 |
| 6. 사업추진일정 | ○ 2017~2018년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
| 7. 기타 |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참 고 문 헌

- 경기일보 (2016.08.04.). 분당구, 초등생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실시.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8265> 에서
2016.10.16.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6a).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b).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김경미, 백사인 (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19-39.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일, 오현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욱 (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인(2010). 청소년 시민 역량 개념과 강화 방안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1(2), 29-60.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Ⅱ: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일주, 성은모, 박소영 (2010). 초등학생의 시각화 경향성이 문제해결력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3(4), 509-534.
- 뉴시스 (2016.10.26.). 울산교육청, 일선학교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http://news1.kr/articles/?2813206> 에서 2016.10.26. 인출.
-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6.10.10.). 정화중학교 체험형 융합교육 'STEAM' 과학수업 소개.
<http://blog.naver.com/dgeduon/220754400738> 에서 2016.10.10. 인출.
- 문주희, 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50.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정보**.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한국인터넷백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성준, 김주일(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 보건복지부 (2015a). **2014 보건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3-2014 산업통상자원백서**.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허선영, 정민주, 김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임정훈 (2012). **학습과학 원리와 실천적 적용**.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미래사회를 대비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45-458.
- 성은모, 진성희, 김균희 (201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7(3), 219-256.
- 성은모, 최창욱(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성은모, 최효선 (2016). 대학교육에서 성적 우수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요인 탐색. **교육공학연구**.
- 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뉴질랜드 교육과정 개혁 동향: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 **비교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27-50.

- 여성가족부 (2015a).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 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염철현 (2012).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제4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원상숙, 최용민(2015).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21-50.
- 유명진, 손강숙(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2), 131-159.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안 연구 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 핵심 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상, 조용하 (2015).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2008).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 연구**, 9(2), 739-754.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I: 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규미, 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근호, 광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원, 김준홍(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 II:연구총괄·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유나 (2016). 역량기반 수업구현을 위한 지원 사례 탐색: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제32권 제3호**. pp.59-88.
- 임효진, 이지은(2015).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에 의해 조절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3(4), 1-33.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선영 (2005).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 환경에서 스캐폴딩 유형이 문제해결단계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혜원 (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독일·러시아·영국·프랑스·핀란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병삼(2011).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발달 궤적. **한국청소년연구**, 22(4), 63~89.
- 정수정, 오익수(2010).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부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상담연구**, 9(2), 163-173.
- 정애경. (2007).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기본법[법제처시행2016.3.2.] (2016.5.2.). <http://www.law.go.kr> 에서 2016.5.2. 인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법제처시행2015.5.4.] (2016.5.2.). <http://www.law.go.kr> 에서 2016.5.2. 인출.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newportal/index.do> 에서 2016.10.15. 인출.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 직업 지표**. 연구보고 09-R12.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5.3 보도자료). **2016 청소년 통계**.

통일부 (2015).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한국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qZc474Ak&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 에서
2016.5.25.에 인출함.

한승희 (2010). **평생학습사회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행정자치부 (2015). **2014 행정자치백서**. 서울: 행정자치부.

환경부 (2015). **2015 환경백서**. 세종: 환경부.

Acarli, D. S., & Kasap, M. Y. (2015). Expla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behavi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pproach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4(2), 172–182.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Ajzen, I., & Fishbein, F. (2008). Scaling and testing multiplicative combinations in the expectancy–value model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 2222–2247.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Prentice–Hall, New Jersey.

Albarracin, D., Blair, T. J., Fishbein, M., & Muellereile, P. A. (2001).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s models of condom use: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7, 142–161.

Amireault, S., Godin, G., Vohl, M–C., & Perusse, L. (2008). Moderators of the intention–behaviour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behaviour relationships for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5(7), 5868–5879.

Armitage C. J., & Conner, M. T. (1999). Distinguishing perceptions of control from self–efficacy: Predicting consumption of a low fat diet using the Theory

-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72–9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betsosi, E., & Antoniou, P. (2009). Gender differences on attitudes, computer use and physical activity among Greek University students.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8, 63–68.
- Bellanca, J., & Brandt, R. (2010). *21st century skills*.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 Boer, H., & Mashamba, M. T. (2007). Gender power imbalance and differenti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intended condom use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Venda, South Africa.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51–63.
- Brace, Kemp, Snelgar (2013). *SPSS for Psychologists*. New York by Psychology Press.
- Branscum, P., & Sharma, M. (2011).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two types of snack food consumption among midwestern upper elementary children: implications for practice. *International Quarterly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32(1), 41–55.
- Branscum, P., & Sharma, M. (2013). *Comparing the util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tween boys and girls for predicting snack food consumption: implications for practice*. Health Promotion Practice, 2013.
- Brunsting, S., & Postmes, T. (2002).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age: Predicting offline and online collective action. *Small Group Research*, 33, 525–554.
- Bryan, A., Kagee, A., & Broaddus, M. R. (2006). Condom use among South African adolescents: Developing and testing theoretical models of intentions and behavior. *AIDS and Behavior*, 10, 387–397.
- Cha, E. S., Kim, K. H., & Patrick, T. E. (2008). Predictors of intention to practice safer sex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 641–651.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55–64.
- Conner, M., Norman, P., & Bell, R. (2002).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y eating. *Health Psychology, 21*, 194–201.
- Downs D. S., & Hausenblas, H. A. (2005).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pplied to exercise: a meta-analytic update. *J Phys Act Health, 2*, 76–97.
- Dunn, K. I., Mohr, P. B., Wilson, C. J., & Wittert, G. A. (2008). Beliefs about fast food in Australia: a qualitative analysis. *Appetite, 51*(2), 331–334.
- Dunn, K. I., Mohr, P. B., Wilson, C. J., & Wittert, G. A. (2011). Determinants of fast-food consump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57*(2), 349–357.
- Eurydice European Unit(2002). *Key Competencies*.
- Fisher, R. (1990). *Teaching children to think*. Oxford. Basic Blackwell Ltd.
- Gagne, R. M. (1985). *The condition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odin, G., & Kok, G.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of its applications to health-related behaviors. *Am J Health Promot, 11*(2), 87–98.
- Godin, G., Shephard, R. J., & Colantonio, A. (1986). The cognitive profile of those who intend to exercise but do not. *Public Health Rep, 101*(5), 521–526.
- Gregory, C. E. (1962). *The management of intelligence*. NU: McGraw-Hill.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USA.
- Guo, R., McAleese, W. J., Appleby, K. M., Guo, J., Zhang, W., Huang, Y., & Peterson, T. (2014). Predictors of intention to use condoms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9*, 712–718.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Biddle, S. J. H. (2002).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in physical

- activity: predictive validity and the contribution of additional variables. *J Sport Exerc Psychol*, 24, 3–32.
- Higgins, J. M. (1994).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NY: The NEW Management Publishing Company.
- Hu, L.,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 Kepner, C., & Tregoe, B. (1967). *The rational manager*. NY: McGraw–Hill.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Cambridge Books.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oore, D. R., Cheng, M. I., & Dainty, A. R. (2002). Competence, competency and competencies: Performance assessment in organisations. *Work study*, 51(6), 314–319.
- Newell, A. & Simon, H. A. (1972). *Human Problem Solving*. NJ: Englewood Cliff.
- Norman, P., Conner, M., & Bell, R. (199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Health Psychology*, 18, 89– 94.
- NZ Ministry of Education(2016.09.10.). Key Competencies 홈페이지.
<http://nzcurriculum.tki.org.nz/Key-competencies/About> 에서 2016년 9월 10일 인출.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Peace, A. G., Galletta, D. & Thong. J., (2003).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1), 153-177.
- Piaget, J. (1963). *Origin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Y: Norton.
- Rychen, D. S., & Salganik, L. H.(2001a).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2b).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Rychen, D. S. & Slganik, L. H. (2003a).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and Salganik, L. H. (2003b).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Association in Chicago.
- Schifter, D. B., & Ajzen, I.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43–851.
- Schwarzer, R., & Luszczynska, A. (2008). Self-Efficacy. Available from http://cancercontrol.cancer.gov/brp/research/constructs/self_efficacy.html
- Seo, H. S., Lee, S. K., & Nam, S. (2011). Factors influencing fast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Seoul: an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s.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5(2), 169–178.
- Sheeran P: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Sung, E., & Mayer, R. E. (2012). Five facets of social presence in online distance educ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738–1747.
-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2016.08.15.).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홈페이지. <http://www.casel.org/>에서 2016년 8월 15일 인출.
-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16.08.05.).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홈페이지. <http://www.qca.org.uk/> 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
- Wu, T., Snider, J. B., Floyd, M. R., Florence, J. E., Stoots, J. M., Makamey, M. I. (2009). Intention for healthy eating among southern appalacian teens. *Am J Health Behav. 33*(2), 115–124.
- Zimmerman, B. J., & Shunk, D. H.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에 대한 토론문

조 아 미(명지대학교 교수)

이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정보보다 중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시계열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본다. 연구내용과 결과에는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성 분석 결과, 청소년 역량 실태조사 결과 요약, 청소년 역량지수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분석 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정책현황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결과도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연구에 대하여 특별한 반론은 없으나 굳이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의 전체 청소년 역량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각 하위역량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아도 시계열 측면의 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학교급간의 차이가 더 눈에 띄지만, 2015년보다 2016년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이에 근거하여 무엇인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성별에 따른 학교급별 청소년 역량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때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감소하여 대학교 때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5년과 2016년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자 대학생의 역량 차이이다. 2015년에는 남자 대학생의 역량이 급증하여 청소년 시절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에는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역량이 감소하여 청소년 시절 중 최하였다. 1년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남자 대학생들에게 일어난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분석 결과의 경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청소년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은 청소년 역량을 파악하여, 적어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적응하는 청소년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그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은 제5차 기본계획에서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도구활용 중에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역량 향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역량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으로 구분된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청소년 역량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관리역량에서는 정서조절 관련 정책이 없고, 진로개발역량에서는 개척정신 관련 정책이 없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른 역량에 비해 특히 생애학습역량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분야의 태동과 관련이 있고, 이제까지 청소년계에서는 대부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의 생애학습역량은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암기를 주로 하는 공부 아니다. 인간이 살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역량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정책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영국의 STEM교육 사례, 미국의 ASELA(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사례, 뉴질랜드의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과 같은 여러 핵심역량 중심으로 된 교육체계의 개편이 소개되었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주로 교육부가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역량을 담당한다. 오히려 교육부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역량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청소년 역량 증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은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제언을 통해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등)이나 학교에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수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융합창의역량 강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현재 부족한 청소년 역량 향상 프로그램들이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여러 역량이 융합된 프로그램도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ASELA(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사례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이 결합된 학습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청소년 역량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이 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청소년 역량지표의 시계열 비교 연구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의 청소년 역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를 우리나라 교육 및 청소년정책과 연관하여 분석해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2015년에는 70%인 2,230개교가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2016년 조사 대상인 중학생 3,406명 중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것은 왜일까? 물론 여기에는 다른 개인적, 사회적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는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발표 4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개발

강경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창조경제시대에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교육과 경제 분야에 있어 큰 화두이다.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고용 안정화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강경균, 이춘우, 2015: 3). 이러한 시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청년 창업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기업가정신 교육별 표준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에서는 창업 교육을 초등과정에서부터 의무 교과로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진수 외, 2008: 76). 최근 정부에서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한국경제, 2015).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초·중·고등학교의 체계적인 창업학 교육과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목영두, 최명길, 2012: 834). 현재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지만,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연계성 및 프로그램의 체계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과를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에서 기업가, 기업가정신, 창업을 교육 소재를 하여 교육내용에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교육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활동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또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년에 걸쳐 기획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지난 2014년의 1차 년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관한 의식조사와 함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오혜섭, 맹영임, 2014 : 4). 2015년에는 2차 년도 연구로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였다. 3차 년도인 금년에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연구의 연계성과 함께 연구결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관련하여 문헌을 고찰한다.

둘째, 1·2차 연구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매뉴얼과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교육 자료를 고찰한다.

2) 델파이 조사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2차 년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조사지를 작성한 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학교 관계자, 정부부처, 학교 밖 관계자, 민간기관 전문가,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델파이 조사 내용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격, 기업가정신 교육의 총괄 목표, 초등학교(고학년) 수준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표, 중학교 수준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수준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표,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 및 핵심 주제, 기타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대하여 내용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 수렴도, 합의도 등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하여 구명하였다.

3) 전문가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전문가 Working group은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구성하였다. 전문가 Working group은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로서 초중고(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학교급 별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Working group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동영상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델파이 조사 등에 참가하였으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4)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는 학계, 정부기관,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실행 개발 방안 모색과 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 면담 참여자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교재 개발 경험 및 교육 경험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면담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1) 국내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결과

국내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기업가정신 교육은 교육부의 경우 창의적 진로 개발의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청의 경우 지식재산창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경우 경제적 자립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진흥원의 비즈쿨의 경우는 교육 대상에 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학교급별 창업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중소기업창업진흥원의 비즈쿨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뽀뽀 비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은 창업 교육의 대상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은 교정기관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력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며 그 내용은 진로, 진학상담, 취업지원

등이다(배지혜, 황다영, 2015: 88). 자립지원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취업 및 자립을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은 진로를 이루어나가게 하는 기업가정신의 특성이 불박여 있다. 예컨대,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자립을 위한 노력은 상담을 통한 생활 관리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작업장 분야 확대 및 청소년 협동조합과 같은 창업지원에까지 확대된다(배다혜, 2015: 111). 학교 밖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 관련 연구물은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 연구물이 있다. 이유진, 박선영(2015: 144-145)은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에 대한 욕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경우도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소년은 사업가로서의 책임의식, 올바른 경제관 확립, 창업 체험학습, 판매 및 홍보전략, 시장조사 방법 및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법, 세금관련 기초지식, 관련법과 제도, 창업절차와 방법 등 창업 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육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국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서구 여러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발전, 혁신추동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구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청년 취업률 제고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성장률 지지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에 제한되고 있는데 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선도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회균등, 성숙한 시민 양성, 지역경제사회 복원 등의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 선도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국가가 당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높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모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사회 통합 활동이 된다. 공정한 경진대회의 방식으로 청소년 학생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에 많은 공을 들여 기회균등을 강조한다. 또한 정규 교과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해서 기업가정신 함양 활동을 통해 학점을 미리 인정받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존 교육체계 개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직업능력개발 혹은 경제교육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정부 조사에 의하면 이마저도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모자란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아젠다로 설정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교육의 위상이 높다. 중국은 일찍이 개혁개방 시기 농촌의 향진기업(鄉鎮企業) 창업을 활성화해서 시장경제 도입의 병목을 돌파하고 WTO 가입 전 국유기업 개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창업(下海)을 강조해서 개체호(介體戶)나 사영기업(私營企業)의 창업 증가로 경제구조개혁을 앞당긴 전례가 있다. 이후 WTO 이후에도 외자기업의 시장진입에 맞서 토착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유학인재(海歸)의 창업을 지원했고 최근에는 노령화인구가 증가하고 인구보너스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기고 경제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혁신형 인재들의 창업(創客)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경제침체의 병목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전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업률 제고와 같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기업가정신 교육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논의되고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 교육이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진행될 때 해외 프로그램의 다양한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참여주체들의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 선도국의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식교류와 지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EU 각 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핀란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사례인 Me & My City 와 Demola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경제활동 체험이나 프로젝트 기획, 진행 등의 현실몰입 교육이 이뤄지는데(ME& MY CITY 홈페이지, 2016; DEMOLA 네트워크 홈페이지, 2016) 이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들 기업들은 광고나 홍보 이외에도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역량을 관찰하고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실제 고용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지역의 학교와 대학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만족시켜줄 수 없는 현실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역량을 키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을 허용한다. 중국에도 칭화대학교 부속중학교에서 이뤄지는 XLP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외부 혁신주체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여러 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교육 공간을 최대한 자유롭게 개방해서 실제 학생들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칭화대학교 부속 중학교 홈페이지, 2016).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우리 고유의 축적된 지식자본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과제에 도전하고 주도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자의 개입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해외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델파이에 조사결과 및 전문가 검토에 의하여 구명되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는 성격, 목표, 내용체제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제

| 구성 요소 | 내용 |
|-------|--|
| 성격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의미와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하여 제시함. |
| 목표 |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에 기초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총괄 목표와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도달점을 초·중·고급으로 제시함. |
| 내용체제 | 기업가정신 교육의 영역과 핵심주제로 구성함. 영역은 기업가정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도 교과 학습 내용을 연계성 있도록 범주화 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핵심주제는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에 따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활동 형태로 제시함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요소는 기업가정신 성격(기업가정신 의미,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격), 기업가정신 교육 목표(총괄목표, 각 학교급별 교육 목표),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용체제(교육 영역, 핵심주제)이며,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성격 및 교육 목표

| 기업가정신 성격 및 교육목표 | 내용 |
|-----------------------------|---|
| 기업가정신의 의미 | 『기업가정신』이란, 삶의 주관자로서 ‘나 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몸소 부딪히며 참된 가치를 창출하려는 혁신적인 마음가짐을 말한다. |
|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격 |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에게 자기 경영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척정신, 주인공정신, 리더십, 도전정신,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준다. |
| 총괄 목표 | 기업가정신 교육은 자기 경영을 통해 스스로 삶을 혁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삶의 주인’으로 생활 속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 봄으로써,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 초급(12-13세) 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수립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실천적 활동을 통해 경제 생활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체험할 수 있다. - 기업가정신의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기초적인 의사결정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중급(14-16세) 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탐색과 체험을 통해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흥미로운 경제 활동과 창의적 문제 해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 기업가정신의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상으로 기업가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
| 고급(17세-19세) 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가적 주인 의식을 갖고 직업세계의 변화와 자신의 진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예비 기업가로서 가상 창업을 실천하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내용체제는 기업가정신 교육영역 및 핵심 주제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학교급별로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인 근간 찾기,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기업가 되어보기에 대하여 교육 대상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용의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모든 영역을 가르쳐야 한다.

표 3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 및 내용

| 교육 영역 | 내용 |
|-------------|--|
| 근간 찾기 | 기업가정신 교육의 기초는 자신의 근간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타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성과 함께 세상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소양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적 소양은 기업가적 가치관이고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제안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
| 기업가 되어보기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중 심화단계는 잠재되어 있던 기업가적 성질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가로서 경험을 해 보는 것이다. 청소년은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몸소 체험하고, 예비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업가로서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

기업가정신 내용 영역에 따른 핵심주제는 연계성 있게 교육하고 각 학교급별에 따른 교육 영역을 강조하여 가르치도록 한다. 특히 근간 찾기는 초등학교(고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중학교에서는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고등학교에서는 기업가 되어보기에 대한 핵심주제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표 4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별 핵심 주제

| 교육 영역 | 핵심 주제 |
|-------------|--|
| 근간 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찾기 · 진정성 찾기 · 가치 찾기 |
|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활동 체험하기 · 흥미로운 제작 경험하기 · 창의적 활동하기 · 혁신적으로 계획하기 |
| 기업가 되어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에 대해 이해하기 · 기업가적 전문성 쌓기 · 기업가로서 부딪혀보기 |

3)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방안 개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성격, 목표, 내용체제를 개발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원활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적용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개발과 동영상 제작하였다.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본 연구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방안을 위해 현장 적용 가능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운영 매뉴얼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교수·학습 지도안, 활용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부분은 기업가정신의 의미,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격,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표, 기업가정신 교육의 교육영역,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에 따른 핵심 주제로 구성하였다

②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은 초급, 중급, 고급, 동아리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의 대상은 초급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12세~13세이고, 중급의 경우는 14세~16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고급의 경우는 17세~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동아리의 경우는 14세~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초·중·고급의 경우, 교수학습지도안은 34차시로 구성하였으며, 동아리의 경우는 17차시로 개발하였다. 교수·학습 지도안의 교육 영역 및 핵심 주제에 따른 대상 및 차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교수·학습지도안 차시 구성

| 교육 영역 | 핵심 주제 | 초급 (12~13세) | 중급 (14~16세) | 고급 (17~19세) | 동아리 (14~19세) |
|-------------|------------------|----------------|----------------|----------------|-----------------|
| | | (34차시) | | | (17차시) |
| 근간 찾기 | · ‘나’를 찾기 | 1~6/34 | 1~3/34 | 1~3/34 | 1~2/17 |
| | · 진정성 찾기 | 7~10/34 | 4~5/34 | 4~6/34 | |
| | · 가치 찾기 | 11~15/34 | 6~8/34 | 7~10/34 | |
|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 · 경제 활동 체험하기 | 16~19/34 | 9~12/34 | 11~14/34 | 3~4/17 |
| | · 창의적 활동하기 | 20~22/34 | 13~17/34 | 15~18/34 | |
| | · 흥미로운 제작 경험하기 | 23~25/34 | 18~22/34 | 19~22/34 | |
| | · 혁신적으로 계획하기 | 26/34 | 23~26/34 | 23~25/34 | |
| 기업가 되어보기 | · 기업가정신에 대해 이해하기 | 27~29/34 | 27~28/34 | 26~28/34 | 9~11/17 |
| | · 기업가적 전문성 쌓기 | 30/34 | 29~31/34 | 29~31/34 | 12~14/17 |
| | · 기업가로서 부딪혀보기 | 31~34/34 | 32~34/34 | 32~34/34 | 15~17/17 |

교수학습지도안의 내용은 초급의 경우, 근간 찾기 내용 영역의 핵심 주제들로 수업을 비중 있게 제시하고, 중급의 경우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내용 영역의 핵심 주제들로 수업 차시를 많이 배정하였다. 고급의 경우는 기업가 되어보기에 내용을 실제 활동 및 체험 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의 구성 체제는 전문가 면담과 Working group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성 체제는 단원의 개요, 수업지도안, 수업노트, 참고자료, 활동지, 평가이며 총 4페이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장의 구성은 단원의 개요 부분으로 교육 영역 및 핵심 주제 제시와 단원에 대한 전체적 활동 및 이론 내용인 수업 노트, 활동지, 평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 | | |
|----|-------|-----|---------|
| 영역 | 근간 찾기 | 단원명 | '나'를 찾기 |
|----|-------|-----|---------|

이 단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p>[생각 열기]</p> <p>사람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여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p> | | | | | | | | | | | | | | |
|--|--|------|-----|---|-----|---|-----|---|-----|---|-----|---|-----|---|---|
| | <p>[수업 노트]</p> <p>자신의 적성을 커리어넷 등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유사한 기업가들의 삶을 조사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p>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임원종류</th> <th>흥미유형</th> </tr> </thead> <tbody> <tr> <td>CEO</td> <td>E</td> </tr> <tr> <td>CTO</td> <td>I</td> </tr> <tr> <td>CMO</td> <td>S</td> </tr> <tr> <td>CFO</td> <td>C</td> </tr> <tr> <td>CDO</td> <td>A</td> </tr> <tr> <td>CPO</td> <td>R</td> </tr> </tbody> </table> | 임원종류 | 흥미유형 | CEO | E | CTO | I | CMO | S | CFO | C | CDO | A | CPO | R | <p>[실천 활동]</p> <p>진로 적성/흥미검사를 커리어넷에서 검사와 워크넷의 창업적성검사를 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생각해보자.</p> <p>그리고 나의 흥미에 회사에서 어떤 임원이 잘 어울리지는 생각해보고 발표해보자.</p> |
| 임원종류 | 흥미유형 | | | | | | | | | | | | | | |
| CEO | E | | | | | | | | | | | | | | |
| CTO | I | | | | | | | | | | | | | | |
| CMO | S | | | | | | | | | | | | | | |
| CFO | C | | | | | | | | | | | | | | |
| CDO | A | | | | | | | | | | | | | | |
| CPO | R | | | | | | | | | | | | | | |
| | <p>[정리 및 마무리]</p> <p>훌륭한 사람의 적성의 모방이 아닌 나의 성격유형에 맞는 색깔을 찾아서 나만의 색깔을 더욱 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 | | | | | | | | | | | | | | |

[그림 1]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1(전체 개요)

두 번째 장의 구성은 수업지도안으로 수업 주제, 차시, 수업 모형, 학습자료, 수업 목표, 교수·학습 활동, 수업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 | | |
|-------|---|--------|----------------|
| 수업 주제 | ‘나를 찾기 | 차시(시간) | 1-3/34차시(150분) |
| 수업 모형 | 강의식 수업, 토론 | 학습자료 | 동영상, PPT |
| 수업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흥미/적성 진로검사를 통하여 객관적 특성을 말할 수 있다. • 나의 흥미/적성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기업체의 임원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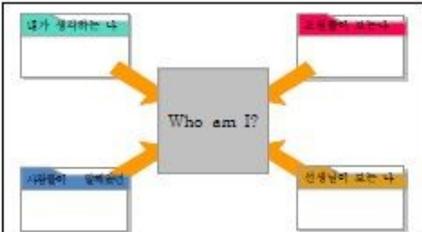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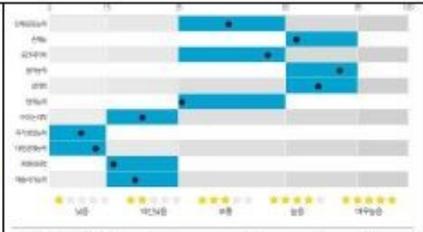
| 단계 | 교수·학습 활동 | 자료 |
|---------------------------|--|---|
| 수업 열기 (1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열기: 아이의 사생활-다중지능 ⊙ 동영상 시청: 성공한 청년기업가의 공통점 6가지 ⊙ 수업 목표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동-1 ▷ 고-동-2 |
| 전개 및 활동 (12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활동: 자신의 흥미/적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1 ▷ 고-강-2 ▷ 고-노-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활동 1: 자신의 흥미에 맞는 나의 색깔 찾기 ⊙ 실천 활동 2: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회사인원을 매핑하고 창업적성검사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활-1 ▷ 고-활-2 |
| 수업 정리 및 평가 (1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정리하기: 마인드맵 ⊙ 성찰하기: 나에게 맞는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기 ⊙ 다음 차시 예고: 천직으로 진정성 찾기 | |

※ 수업 시 유의사항

- ▶ [생각 열기]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을 더욱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잘하는 부분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 지도가 필요함
- ▶ [실천 활동 1] 검사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의미에 대한 해석이 더욱 중요하며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흥미와 적성 기반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함
- ▶ [실천 활동 2]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는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 필요한 분야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높은 직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도록 해야 함
- ▶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망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으며 인생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삶이란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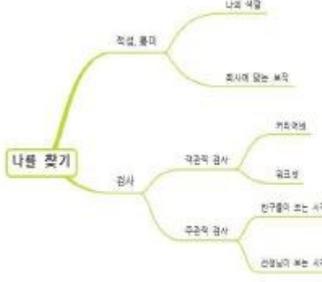
【그림 2】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2(수업 지도안)

세 번째 장의 구성은 수업 노트와 참고 자료로 구성하였다. 이 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기타 수업 노트 및 참고 자료의 추가적인 정보와 내용은 동영상 콘텐츠 CD에 제시하였다.

| 수업 노트 | 흥미와 적성의 이해 | |
|--|---|-------------------------|
| <p>1. 흥미: 어떤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쾌, 불쾌, 수락, 거부의 경향을 말하며 직업흥미는 직업의 선택, 지속, 만족감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좋아하는 경향이라고 보면 된다.</p> <p>2. 직업적성: 특정 영역(학업, 업무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말하며 잘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p> <p>3. 흥미와 적성 탐색 방법  2-4-1</p>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27 796 749 1074">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적 탐색]</p> </div> <div data-bbox="749 796 1172 1074">  <p style="text-align: center;">[객관적 탐색]</p> </div> </div>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넷 www.career.go.kr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적성·흥미). 직업선택을 위한 학과정보(적성과 흥미에 따른) http://www.work.go.kr - 아하경제(2013. 05. 06).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뭐니?. http://ahaconomy.flash21.com/News.aha?method=newsView&n_id=10470&cid=135&pid=2 | | Note Bank |
| 참고 자료 | '나'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2-4-1 | |
| <p>미국의 Holland라는 학자가 개발한 RIASEC(R:현실형, I:탐구형, A:예술형, S:사회형, E:기업가형, C:관습형)의 여섯 개 흥미로 나누어 흥미와 직업 환경의 흥미와 일치하면 직업 환경의 적응력이 가능성이 높아지나 맞지 않더라도 흥미는 좋아하는 분야이므로 취미로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여섯 개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본 유형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하경제(2013. 06. 17). 내게 어떤 직업이 맞을까?. http://ahaconomy.flash21.com/News.aha?method=newsView&n_id=10861&cid=135&pid=2 | | Information Bank |

【그림 3】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3(수업노트 및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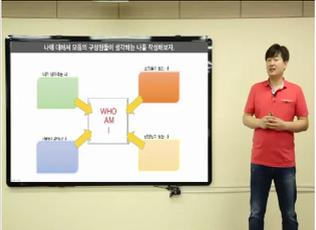
네 번째 장의 구성은 활동지와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동 위주의 수업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과 탐색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업 전반에 대하여 마인드 맵(Mind map)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와 평가를 제시하였으며, 다음 차시 예고를 통해 다음 차시에 대한 제목 및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활동지는 축소본 이므로 활동지의 원본과 추가 정보는 콘텐츠 CD에 제시하였다.

| | | |
|---|--|----------------------|
| 활동지 | ① 실천 활동 1: 자신의 흥미에 맞는 나의 색깔 찾기  활동 1 ② 실천 활동 2: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회사인원을 매핑하고 창업적성검사하기  활동 2 | |
| 실천 활동 1 | 실천 활동 2 | |
|  |  | |
|  |  | |
| 커리어넷에서 직업흥미 검사 후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색깔 찾아보기 |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회사인원을 매핑하고 창업적성검사해보기 | |
|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창업적성검사. http://www.work.go.kr | | Activity Bank |
|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 '나'를 찾기 ▶ 진정성 찾기 | |
| 내용 정리 및 활동 정리 | 다음 차시 예고 | |
|  | - 천직을 통한 나의 진정성 찾기 - 가식이 아닌 진실성에 의한 진정성 찾기 | |

【그림 4】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4(활동지 및 정리)

표 7

동영상 콘텐츠 구성 요소 및 내용

| 구분 | 구성 요소(예시) | 내용 | 동영상 콘텐츠 |
|----------|-----------------------------------|---|---|
| 동영상 | 초-동-1 성공한 청년기업가의 공통점 6가지 | 생각열기 및 동기 유발을 위한 동영상으로 초-동-1의 경우 고등학교 첫 번째 생각열기 동영상을 의미함 |  |
| | 고-강-1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 수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고-강-1의 경우 고등학교 강의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의미함 |  |
| 수업 노트 | 고-노-4 기업가의 진정성 | 수업에 내용에 대한 핵심 이론 및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고-노-4의 경우 고등학교 네 번째 수업노트를 의미함 |  |
| 참고 자료 | 중-참-2 기업인의 가치관 | 수업 시 필요한 읽기 자료나 참고할 문헌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중-참-2의 경우 고등학교 두 번째 참고자료를 의미함 | <p>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당신은 시력이 나빠서 보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찍이 경험하는 안경판매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 안경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신의 얘기를 간단해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p> <p>“자, 이를 끼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안경을 써 왔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한 개가 더 필요하시면 안경이 써줄 거예요.”</p> <p>그녀는 당신을 그 안경을 써 보라. 그러나 그녀는 더욱 완변해 보인다.</p> <p>“이런 도구가 너무 좋군요. 아무 것도 안 보이네요.” 하고 당신은 한 소리도 쏘인다. “해 안경이 거지요? 나한테는 잘 맞았는데, 자, 다시 한번 꼭 써요.”</p> <p>“쓰고 싶어요.” 하면서 당신은 향기한다. “그렇지만 모든 게 커리하게 보일 뿐이예요.”</p> <p>“좋은 소리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오세요 보세요.”</p> <p>“그러나 난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p> <p>“이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군요.” 하고 그가 나무란다. “당신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p> <p>일단 후에 당신이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이 안경점에 갈아올 가능성이 있을까?</p> |
| 활동지 | 동-활-6 나의 색깔 찾기 | 수업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실험해 보고 체험해 보면서 해당 내용 정리 및 느낀점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동-활-6의 경우 고등학교 여섯 번째 활동지를 의미함. |  |

동영상 콘텐츠는 동영상 강의 및 영상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록하였다. 또한 초급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중급의 경우, 실제 활동 사진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고급의 경우, 각 핵심 주제별로 강의동영상을 통해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교수자와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육과정 및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밖의 기관에서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에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학교에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각 학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초급 교수·학습 지도안(34차시)을 각 교육 영역과 핵심 주제에 따라 타 교과와 연계하여 융합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영역을 활용하여 기업가정신 창업 동아리 활동 및 이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창업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중급 교수·학습 지도안(34차시)과 동아리 교수학습지도안(14차시)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중 진로 탐색 활동 과정과 동아리 활동 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멘토링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제작 또는 창업 아이디어의 발전 가능성 진단, 보완해야 할 사항 등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과 진학지도를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진로교육과 연계할 경우 각각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주제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청소년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활동들은 진학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각 대학의 2017년 입시 전형을 살펴보면, 창업 관련 특기자 전형(금오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통해 창업 관련 전형(단국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대진대학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동기 부여와 함께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기관에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장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학업중단 중심의 학교 밖 시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로센터 등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창업 활동과 이후의 결과물을 사회적 배려로 활용할 경우,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의 적용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받아 참가 청소년의 활동인증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방과 후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도하고 있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에서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의 회기 프로그램을 집중 방식으로 변형하여 캠프활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청소년하계캠프의 특정 주제 활동으로 창업캠프 등을 운영한다면, 수련시설에서의 일반적 캠프에 비해 매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 청소년쉼터의 운영모델 중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경우 길게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머무르는 청소년들이 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특성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또한 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짧지만 장기간 이용하는 노숙형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욕구 만족형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자체 집단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대부분 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센터가 공존하므로 꿈드림에서 기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중심의 학교 밖 시설인 꿈드림센터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인형 홍보 프로그램으로 창업 프로그램의 활용할 수 있다.

5. 정책 제언

최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 주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을 통해 학교의 정규 수업 안에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 기업가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창업 아이디어를 제작 혹은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동아리 활동 과정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운영대상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매뉴얼에 대하여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시행중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환경이 요구되며, 아울러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전문가 인력 양성 및 멘토를 위해서는 초·중고 교사, 대학 창업동아리 학생, 동문 창업자 등으로 기업가정신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사, 멘토, 학생들과의 토의를 통해 성숙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부 기관의 협조를 통해 홍보와 전문가 인력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운영 매뉴얼은 학교 현장 교육 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진로 접근이 필요한 학교 밖 기관에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창업 동아리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시설에서는 청소년 창업동아리 형태의 기본 구성을 학교 내의 과정보다 더욱 탄력성 있는 적용을 통한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과정을 통해 그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즉 꿈드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형(두드림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며, 특히 꿈드림 센터에서 운영 중인 “뽀뽀비즈” 프로그램인 단기 모의 창업 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연계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연계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적용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따른 전문가 양성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의 경우 지자체 별로 관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과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경균, 이춘우 (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15-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영두, 최명길 (2012). 대학의 창업 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배지혜, 황다영 (2015).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연구. 광주: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오해섭, 맹영임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4-R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유진, 박선영 (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15-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Me & My City 홈페이지 (2016). <http://yrityskyla.fi/en/>에서 2016년 10월3일 인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및 실행 방안 개발』에 대한 토론

유 성 렬(백석대학교 교수)

1.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3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 기업가정신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이며, 특히 기업가정신이 대학에 진학해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임

2.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국내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음. 즉, 기업가 정신 교육이 현실적인 목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참여 주체들의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직업교육 혹은 진로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사회통합 활동의 형태를 지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성격, 목표, 내용체제를 먼저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가 정신 교육 영역을 근간 찾기, 기업가적 소양 갖추기, 기업가 되어보기로 구분하고, 초·중·고급 및 동아리 용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음

4.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하고,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동영상도 함께 제작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과 학교 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토론자로서 본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하고자 함

5.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연구자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사회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가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연구자의 정의와 일반인들의 생각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연구자가 발표하신 내용이 전체 연구의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지만,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의가 기존의 혹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해 준다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문가들이 교육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가 무엇이며, 기업가적 소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 준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국내 유사 프로그램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다면, 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본 프로그램이 앞서 검토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여 준다면, 본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실제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효과성 측정 방법 - 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러한 효과성 측정은 매 차시 종료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목적 혹은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 단계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함

MEMO

MEM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연구과제 제안서

[※ 2017년 수시과제 제안서 적용]

^
절
취
선
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 성격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중 √표시) | <input type="checkbox"/> | 기초연구 : | 이론개발, 모형개발, 조사통계자료 및 해외동향자료 수집·정리 등 이론적·학술적·정책적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정책연구 : | 중앙부처 또는 2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연계된 정책대안 제시·평가 등 정책적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radio"/> 2017년도 수시과제로 제안하는 경우는 오른쪽 괄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 수시과제 :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소규모 단기 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시과제로 제안한 과제는 아래의 박스 오른쪽 성격에 √표시(중복표기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input type="checkbox"/></td> <td>현안대응성</td> <td colspan="3">사회쟁점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정책지원성</td> <td colspan="3">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긴급요청 주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선도성</td> <td colspan="3">정책환경과 미래전망을 토대로 지식창출과 정책파급 목적의 주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융합성</td> <td colspan="3">정부, 청소년관련 공공기관, 현장과의 긴급 협력연구가 필요한 주제</td> </tr> </table> | | | | | <input type="checkbox"/> | 현안대응성 | 사회쟁점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 | | | <input type="checkbox"/> | 정책지원성 |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긴급요청 주제 | | | <input type="checkbox"/> | 선도성 | 정책환경과 미래전망을 토대로 지식창출과 정책파급 목적의 주제 | | | <input type="checkbox"/> | 융합성 | 정부, 청소년관련 공공기관, 현장과의 긴급 협력연구가 필요한 주제 | | |
| <input type="checkbox"/> | 현안대응성 | 사회쟁점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정책지원성 |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긴급요청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선도성 | 정책환경과 미래전망을 토대로 지식창출과 정책파급 목적의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융합성 | 정부, 청소년관련 공공기관, 현장과의 긴급 협력연구가 필요한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연구형태를 협동연구 로 제안하는 경우는 V 표 해주세요 () ※ 협동연구 : 정부 및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안사유) | <input type="radio"/>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연구내용 | <input type="radio"/>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효과 (활용방안) | <input type="radio"/>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예산 등) | <input type="radio"/>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 예산 |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자 | 성 명 | | 소속 (직위/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연 락 처 |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환경 변화와 청소년 역량 강화

인 쇄 2017년 3월 28일

발 행 2017년 3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에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